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홈캐시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389호

Wednesday, September 24 2025 A

“내가 7개 전쟁 끝냈다, 지금이 미국의 황금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전 유엔(UN)총회 연설에서 “취임 이후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다”며 “유엔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 만에 다시 찾은 유엔총회에서 작심하고 ‘유엔 무용론’을 꺼냈다. 그는 “유엔은 전쟁 종식에 도움 안 됐으며 오히려 확진만 초래했다”며 “빈말로는 전쟁을 해결 할 수 없기에 내가 유엔을 대신해 전쟁을 끝내야 했다”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진짜 상은 끝없는 전쟁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아서 성장하는 아들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임 후 자신이 거둔 경제적 성과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가장 강력한 경제, 국경, 군대, 동맹과 정신으로 축복 받은 나라”라며 “지금이 미국의 ‘골든 에이지(Golden Age-황금기)’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문제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동맹국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오전 유엔(UN)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을 비판하며 “하마스는 즉각 인질을 석방하라”고 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봉쇄 해법에 대해 “일부 인질만 석방해서 안 된다. 하마스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과 유럽 국가들이 팔

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꺼내자 “하마스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갈등을 조장하려는 이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역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자신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외교 기조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관련해 “지난 행정부 하에서 4년간의 나약함, 무법 그리고 급진주의가 우리나라를 반복된 재앙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만약 당신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며 “당신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 국민의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유엔의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서한을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라며 “유일한 방법은 말에 수반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도중에는 프롬프트 고장으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엘리베이터와 프롬프트”라며 “프롬프트 없이 연설을 해도 상관없지만, 어떤 사람은 큰 곤경에 처하게 됐다”고 농담해 청중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김옥채 기자 > 2면 ‘트럼프 유엔 총회’로 이어집니다

H-1B 비자 남용 기업 본격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기존 H-1B 비자를 악용해온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고숙련 전문직 비자인 H-1B 제도를 비용 절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인건비로 고용하면서 H-1B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고숙련 일자리는 우선 미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H-1B 남용을 근절하고 고용주가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0년 H-1B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방위적 조사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H-1B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포고문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특히 H-1B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인도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재홍 기자

“타이레놀 복용, 자폐아 유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널리 복용되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을 임신 중에 복용할 경우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은 다른 성분의 진통제보다 임신 중 위험도가 낮다는 기존 의학 지침을 뒤집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극심한 고열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소량만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을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00년 대비 자폐증 유병률이 약 400% 늘었다는 미 보건당국의 통계를 들어 “임신부는 물론 아기도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이레놀은 매우 비싸서 쿠바는 ‘그것’이 없는데, 그래서 쿠바엔 본질적으로 자폐가 없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곧 국립보건원(NIH)이 자폐증 관련 연구 13건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간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유엔본부 인근서 통신 방해 장비 적발

전세계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앞두고 뉴욕의 유엔 본부 인근에서 대규모 통신 방해 장치가 발견됐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대통령을 경호하는 비밀경호국은 유엔본부를 중심으로 반경 56km 내에 여러 장소에서 통신 방해 장치들을 적발했다. 해당 네트워크 장비는 10만 개가 넘는 유심(USIM)을 장착할 수 있는 300개 이상의 서버로 구성됐다. 분당 최대 3000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익명으로 동시에 발송해 네트워크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규모라고 비밀경호국 관계자들이 전했다.

비밀경호국 뉴욕사무소 책임자인 맷 맥클은 “요원들이 현장을 급습했을 때 유심과 서버 장치가 잔뜩 쌓여있었다”



23일 비밀경호국이 공개한 불법 통신방해장치 적발 현장 사진.

며 “10만 대 이상이 이미 활성화됐고, 추가 배치를 기다리는 서버도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이 공개한 현장 사진에서 사무실 한쪽 벽이 유

심이 장착된 서버로 가득했다.

비밀경호국은 올해 초 미국 백악관과 비밀경호국의 고위직을 겨냥한 전화 협박 사건을 추적하던 중 불법 네트워크 장비들을 발견했다. NYT는 “최소한 개의 국가가 유심 장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총회 관련해 통신을 방해할 계획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대규모 장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이 거론된다.

연방수사국(FBI)과 백악관에서 사이버 보안 책임자를 맡았던 앤서니 페란테는 “직감이지만 간첩 행위를 위해 설치된 것 같다”며 “네트워크 방해뿐만 아니라 도청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30일까지 예산안 처리 못하면 다음달부터 섰다운

민주당이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면서 정부 폐쇄, 즉 ‘섰다운’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30일 자정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방정부는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사실상 멈춰 선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폐지한 건강보험 정책 복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치적 인질극’이라며 맞서고 있다.

섰다운이 닥치면 국방, 치안, 소방, 교도소, 항공 관제 등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연방 기관 운영이 중단된다. 국립공원과 박물관이 문을 닫고, 여권 발급 같은 행정 서비스도 멈춘다. 연방 공무원 80만 여명은 당장 월급이 끊긴다.

이들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거나, 필수 인력으로 지정돼도 급여 없이 일해야 한다.

브래덕 슈퍼바이저 경선 선호투표제

문일룡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이 출마한 브래덕 디스트릭 슈퍼바이저 보궐선거를 위한 민주당 예비경선이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뤄질 예정이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대신 선호도에 따라 후보의 순위를 매길 수 있으며, 단일후보만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10월4일 예정된 경선 현장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실시된다.

온라인투표는 페어팩스카운티 민주당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할 수 있다. 온라인투표 등록은 2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5시까지 받으며 실제 온라인투표는 10월 2일 정오부터 10월 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후보등록 마감일은 25일이다. 본 선거는 12월9일 치러진다.

한편 문일룡 후보는 최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열린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일본·남아공 달러 강세 지역으로 남아

연방준비제도(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국과 일본, 남아공 등 일부 국가는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인들의 여행 유인이 여전히 많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가 수십년째 이어지는 일본의 경우 작년 방문객 3700만명 중 미국인은 270만명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호텔스닷컴의 호텔 가격 지수(HPI)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호텔 1박 평균요금은 200달러 미만이었다.

연방교육부 TJ과학교 보조금 신청 반려

연방교육부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에 TJ과학교의 보조금 신청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방교육부는 연방인권법 등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연방교육부가 성소수자 정책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압

박하자, 카운티 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성소수자의 성적 정체성에 따른 라커룸 등의 이용을 허가해왔다. 1심은 카운티 교육청이 패배해 2심에 계류돼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청소년재단, 그룹 멘토링 강연 개최

“긍정적 태도와 감사의 마음이 학업 성취 높인다”

워싱턴청소년재단(이사장 김범수)은 지난 20일 메릴랜드 락빌 공립도서관에서 그룹 멘토링 강연을 열고, 새 학기를 맞는 청소년들에게 학습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멘토로 나선 제니 김

몽고메리 카운티 교사는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기대감과 감사, 그리고 존중의 자세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감사의 마음,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들에 대한 존중의 태도가 있을 때 학업 성취도 역시 크게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워싱턴청소년재단은 이번 가을 학기에도 그룹 멘토링과 함께 영어·수학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오는 25일(토)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농장을 방문해 사과 수확 체험 활동을 진행, 학업 외에도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240-722-7178 김윤미 기자

▶ 1면 ‘트럼프 유엔 총회’에서 이어집니다

이후 프롬프트가 복구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유엔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 두 가지뿐이었다. 올라가다 중간에 멈춘 에스컬레이터와 작동하지 않는 텔레프롬프트”라고 비꼬며 유엔을 다

시 한번 조롱했다. 그는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늘 말해왔지만 잠재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저 강한 어조의 편지를 작성하는 것만 하는데, 공허한 말은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행동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기후변화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으며, “러시아는 전쟁 끝낼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유럽도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25일(목) 77-66		28일(일) 78-63	
	26일(금) 81-65		29일(월) 78-63	
9월 24일(수) 83-70	27일(토) 75-64		30일(화) 73-58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특점 알링턴 콘도 \$2,100 차고 1, 방 1, 화 1	RENT 특점 매나세스 파크시티 \$3,000 차고 2, 방 3, 화 2.2	SALE 특점 알렉산드리아 3층 다운홈 Coming Soon 차고 2, 방 3, 화 3½
--	--	---	--

축

창간 24th 기념

워싱턴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동포들과 한인 사회를 위해 늘 바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메릴랜드 프린스 한인회

회장 이옥희
수석부회장 겸 고문변호사 김웅용 외 임원진 일동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 발의

이민법 헛점 탓에 추방당하는
한인 입양인도 나와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지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보호법안(Protect Adoptees and American Families Act)’이 연방의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원래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었으나 이민 문제가 아닌 가족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미국 입양인 및 입양인 가족 보호 법안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법안은 마치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백으로 시민권을



미주한인유권자연대(대표 김동석)이 제3회 한인입양인 미국국적 찾아주기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기
에, 입양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1945~1998년 사이 미국에 입양된 외
국인 중 현재 5만명 정도가 입양 당시
의 상황으로 시민권이 없는 상태인 것
으로 알려졌다. 이중 상당수가 한인이다.
이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성인이 된 후 범죄

전력 등으로 추방된 한인도 있었다.

연방 의회는 2000년 만 18세 미만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아동
시민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 입양인들은 적용 대상
에서 제외돼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이다.

연방 의회에서는 이후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매년 회기마다 ‘입양인 시
민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
으며 올해에는 법안 이름을 변경했다.

2000년 개정이민법은 18세 이전에 입
양된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
도록 했지만, 법 시행 이전 18세가 되었
거나 2001년 2월 27일 이후에 입양된 입
양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해 시
민권이 없는 상태로 남게 되었다.

법안은 이러한 무국적 입양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이후 여
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
고 있다.

김윤미 기자

코스트코, ‘아히튜나
와사비 포키’ 리콜

연방 식품의약국(FDA)는 22일 코스트
코에서 판매된 커를랜드 시그니처 아히
튜나 와사비 포키(Kirkland Signature
Ahi Tuna Wasabi Poke) 제품 3315파운
드를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리스테리아균 오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주 켄트에 본사를 둔 Western
United Fish Company(Annasea
Foods Group 명의로 운영)에서 제조한
리콜 대상 제품은 코스트코 상품번호
17193번으로, 투명한 플라스틱 조개껍
질 용기에 포장되어 있으며, 포장일은 9
월 18일이고, 유통기한은 2025년 9월 22일
로 되어 있다.

이번 리콜은 제품에 사용된 쪽파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에 따른 예방
조치로, 쪽파 공급업체가 제조사에 양
성 반응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판매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를 비롯
해 전국 36개 주 코스트코 매장에서 했
다. 리스테리아균 감염 증상으로 고
열, 심한 두통, 경직, 메스꺼움, 복통, 설
사 등이 일어난다.

김성한 기자

세계한인회장대회 29일 개최

서울서 나흘간 진행

한국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연례
행사로 주최하는 ‘2025 전세계한인회
장대회’가 오는 29일 서울에 있는 그랜
드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다.

29일부터 나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는 “700만 재외동포
와 함께 세계를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며, 미주를 비롯해 70여 개국에서
3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김덕만 버지니아

한인회장, 김용하 몽고메리한인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하기 위해 방문길에
올랐다.

광복 80주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모으
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마련되었는데,
신규 프로그램으로 ‘공통 의제 토론’과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를 기
획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성한 기자

식품값 치솟자 ‘종이 쿠폰’ 다시 부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라졌던 종이 쿠폰이 다시 부활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식품 및
생활용품 가격에 경제가 어려워진 소
비자들을 잡기 위한 유통업체의 대응
인 동시에 물가 압박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기도 해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코로
나 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중단했던
종이 쿠폰을 최근 다시 부활시키며 대
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한인들이 즐겨찾고 있는 초대형 식
품업체 ‘자이언트’도 크로거와 경쟁을
하듯 종이 쿠폰을 등장시키고 소비자
잡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물가 인상으로 지갑이 얇아져
가격에 민감한 소비층이 예전처럼 판
촉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 양극화 현상도 불거지고 있는
데, 저소득층은 쿠폰과 소포장 제품 등
주로 산 가격에 눈을 돌리고, 고소득
층은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 구매를 이
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사회도 쿠폰에 관심을 갖기는
마찬가지인 데, 많은 사람들이 대형 식
품점에서 매주 언론에 나오는 세일이
나 할인 쿠폰을 확인한 후 매장을 찾아
쇼핑을 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종이 쿠폰 부
활은 단순한 판촉이 아니라, 식료품 가
격 상승이 예상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관세 인상, 농장 인력 부족, 이
상 기후가 겹치면서 공급망 전반에 큰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한
다.

김성한 기자

비시민권자 유권자 명부 삭제하라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유권자명
부에서 비시민권자를 삭제하기 위해 연
방정부와 각종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
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 선거구과 선거위
원회는 연방국토안보부 및 연방선거지
원위원회 등의 협조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 명부
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이용해 유권자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의 시민권 보유 여부를 검사하도
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4년 행
정명령을 통해 유권자 명부에서 실수로
자격을 갖춘 유권자를 삭제한 혐의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영킨 주지사는 “선거를 둘러싼 환경
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선거 보안 역시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지역에서 회복탄력성
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모든 주민이 자유
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선거를 계속 신
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옴니!
보험에 관한 옴니 선택 - 옴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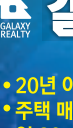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력을 무는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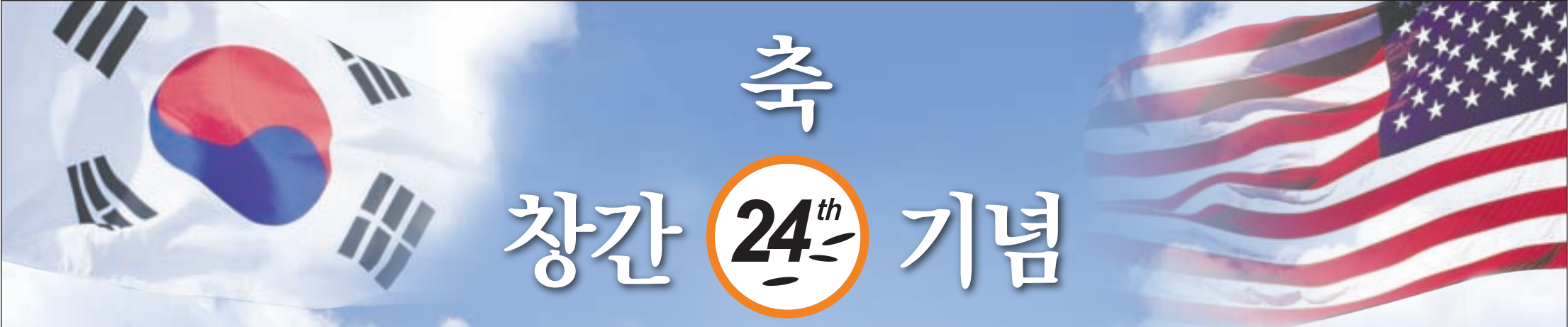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20년 이상 경력
주택 매매·렌트 전문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축

창간 24th 기념

워싱턴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신문으로서,
한인 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워싱턴 중앙일보사의 창간 2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늘 한결같이 앞으로도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한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워싱턴 중앙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버지니아한인회 회장 김덕만 외 임원 일동
KOREAN AMERICAN SOCIETY OF VIRGINIA

손흥민 홈경기 첫 골…경기장은 축제 열기

‘흥부 듀오’ LAFC, RSL 4-1 대승
조니 활약에 플레이오프 확정
손흥민·김혜성 이날 처음 만나
한인타운 기반 서포터스 결성
한국에서 단체 관람객 오기도

지난 21일 LAFC 홈구장 BMO 스타디움은 축제의 열기로 뜨겁게 달궈졌다.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홈경기 첫 골을 터뜨렸고, 손흥민과 함께 ‘흥부 듀오’로 불리는 드니 부앙가 선수는 헤트트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은 LAFC는 이날 열린 메이저리그사커(MLS)



지난 21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대 레알 솔트레이크 경기 전반 추가시간 3분 손흥민 선수가 역전 골을 터뜨리자, LAFC 공식 서포터스 ‘3252’ 구역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정운재 기자

정규리그에서 레알 솔트레이크(RSL)를 4-1로 제압했다. 오후 3시,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BMO 스타디움 앞은 팬들로 붐볐다. 지난달 31일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처음 홈 무대에 섰던 날과 마찬가지로 경기장은 일찌감치 응원 열기로 데워지고 있었다. 경기 전 BMO 스타디움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테일게이트 파티는 LAFC의 뜨거운 응원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이 자리에는 한옥 무늬의 텐트가 설치된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바로 LA 한인타운 기반의 LAFC 서포터 그룹 ‘다이어 서포터스 그룹(TSG)’의 부스였다.

조쉬 이 TSG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는 “LAFC 응원을 위해 TSG 회원 100명 정도가 경기장을 찾았는데, 지난 홈경기 때보다 30~40명이 더 왔다”며 그룹 회원들의 열정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RSL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하며 멋진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홈경기에서 첫 골을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홈경기 때와는 달리 이날 잔디마당에서는 ‘팬 페스트(Fan Fest)’가 열렸다. 난타 공연과 멕시코 전통 무용 무대가 펼쳐졌고, 골 넣기 게임 같은 체험 이벤트와 추로스, 핫도그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팬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김경준 기자

한인 대학생 석방 뒤엔 공화 의원 조용한 개입

WSJ, 고연수 보석 후문 보도

지난달 한인 대학생이 갑작스럽게 구금됐다 나흘 만에 풀려나기까지 다름 아닌 공화당 하원의원의 조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뒷얘기가 보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 보도에서 지난달 있었던 한인 대학생 고연수(20)씨 석방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전했다. WSJ가 지목한 주인공은 마이크 롤러(39) 뉴욕주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으로, 여당인 공화당 소속인데도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맞서 조용히 개입한 의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보도에 따르면 고씨는 성공회 사제인 모친 김기리 신부를 따라 지난 2021년 3월부터 종교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해오다



지난달 석방된 고연수(왼쪽)씨와 모친이 함께 걷고 있다. [abc7 캡처]

올해 7월 31일 뉴욕 이민법원에서 심리 기일을 오는 10월로 연기받고 범정을 나서던 중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고씨는 현지 성공회와 한인 사회를

포함한 각계 지원 속에 나흘 만인 8월 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그런데 고씨의 석방이 성사된 배경 중 하나로 롤러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게 WSJ가 전한 뒷얘기다. 고씨의 변호사인 메리 로스웰 데이비스는 롤러 의원의 ‘조용한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동료 중 한 명이 롤러 의원실 관계자에게 고씨와 관련된 상황을 알려준 지 불과 며칠 만에 석방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롤러 의원실은 고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8월 5일 고씨의 석방을 축하하는 성명을 냈다. 성명에 따르면 롤러 의원은 당시 “고씨의 석방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이 연방 당국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면서 “고씨의 사례는 우리의 부실한 이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한국 우체국, 미국행 소포 재개

관세는 발송인이 부담
100불 이하 선물 무관세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를 22일부터 전면 재개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납부 경로를 확보했다.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납부 또는 계좌이체로 선납하는 방식(DDP)으로 운영된다. 접수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제우편 기표지(CN22/23)에 품명·개수·가격·원산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약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기존에 우편물로 보낼 수 있었던 김치 등 음식물도 접수할 수 있고 100달러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다.

① 중앙일보기사관련 : 703-281-9661

가족이민 문호 대폭 진전

국무부, 10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영주권자 직계가족 1년 5개월 진전
취업이민은 순위 따라 희비 엇갈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 문호가 대폭 진전했다. 취업이민 문호는 소폭 진전된 가운데 순위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15일 국무부의 ‘2025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이 대상인 2A 순위의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22년 9월 1일에서 2024년 2월 1일로 1년 5개월 앞당겨졌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2B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16년 10월 15일에서 2016년 11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가족이민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문호 역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5주 빨라졌다. 이와 함께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이

민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7월 15일에서 2016년 11월 8일로 3개월 3주 진전했다. 가족이민 접수가능우선일자 문호는 소폭 진전했다. 2A순위 접수가능우선일자가 약 4개월,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문호는 2개월 진전했다. 기대감을 키웠던 취업이민 문호는 예상보다는 소폭 진전했으며 순위마다 격차가 있었다.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의 영주권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기존 2023년 9월 1일에서 2023년 12월 1일로 3개월 진전했고, 취업이민 2순위 접수가능일도 8개월 진전했다. 그러나 취업이민 3순위 문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3순위 숙련직의 경우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동결됐으며, 3순위 비숙련직 부문도 전달보다 1주 진전에 그쳤다. 처리불가 상태였던 취업 4순위(종교이민) 성직자 부문은 2020년 7월 1일로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새롭게 설정됐다. 김은별 기자

2025년 10월 중영주권 문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접수가능우선일자
가족이민	12 016년 11월 8일 (2016년 7월 15일)	2017년 9월 1일 (2017년 9월 1일)
	2A 2024년 2월 1일 (2022년 9월 1일)	2025년 9월 22일 (2025년 6월 1일)
	2B 2016년 11월 22일 (2016년 10월 15일)	2017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32 011년 9월 8일 (2011년 8월 1일)	2012년 7월 22일 (2012년 7월 22일)
취업이민	42 008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2009년 3월 1일 (2009년 1월 1일)
	1 오픈 (오픈)	오픈 (오픈)
	22 023년 12월 1일 (2023년 9월 1일)	2024년 7월 15일 (2023년 11월 15일)
	3 2003년 4월 1일 (2023년 4월 1일)	2023년 7월 1일 (2023년 5월 1일)
	42 2021년 7월 15일 (2021년 7월 8일)	2021년 12월 1일 (2021년 7월 22일)
	5 020년 7월 1일 (처리불가)	2021년 2월 15일 (2021년 2월 1일)

괄호 안은 2025년 9월 우선일자, 자료: 국무부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데이빗 막스 변호사 David L. Marks, ESQ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영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28전 19승...트럼프 공격적 행정명령 소송 전략?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독립기구 위원의 해임, 출생 시민권 금지 등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행정명령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연전연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소송만 골라서 항소하는 법무부의 전략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NBC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날까지 행정명령에 대한 28건의 대법원 긴급 심리 사건 중 트럼프 행정부는 19건에서 승소했다. 패소는 2건 뿐이었고 4건은 계류 상태, 3건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기존 정책 혹은 오랜 관습을 뒤집고 있다.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 출생 시민권 금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연방 자금 지출 동결 등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추진됐고, 그

때마다 효력 중단 또는 행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됐다. 하급심에서 일부 패소하면서 행정명령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지만, 보수 6대 진보 3의 대법원은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었다.

NBC뉴스는 정교한 전략이 트럼프 행정부의 연전연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딘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과 데이비드 워링턴 백악관 법률고문이 키맨으로 꼽힌다.

강경 보수 성향인 앤토니 스칼리아 전 대법관의 법률 서기관(Law clerk)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우어는 차관은 지난해 퇴임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대법원 판결을 이끌었다. 워링턴 고문은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등 2016년 대선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해 왔다. 워링턴 고문이 전직 대법원 로클릭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으로 행정명령 작성 단계부터 법률적 쟁점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비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검토하고, 사우어 차관이 대법원에서 행정부를 대리해 변론을 이끌면서 승소를 주도하고 있다.

NBC뉴스는 "행정부 상대로 한 소송이 300건이 넘는데 트럼프 행정부

는 28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며 "보수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건을 신중하게 선정한 덕분에 주목할만한 결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로펌에 대한 연

방계약을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이 시행 금지를 명령하자 항소를 포기하는 등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배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은 대법원 승소에 힘입어 하급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의회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의 남발과 이를 추진하는 대법원이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하급심 판사들을 "좌파 미치광이"라고 좌표를 찍으며 공개적인 압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 엘리자베스 와이드라 헌법책임센터소장은 NBC뉴스에 "대법원이 행정부에 대한 헌법상 견제 역할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은 강화되고, 독립된 연방 기관의 권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마린원에 붉은 레이저 빔 쏜 30대 남성 기소

최대 5년 징역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에 레이저 포인터를 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2일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의자 제이컵 새뮤얼 윈클러(33)는 지난 20일 백악관 인근 인도에서 이륙 중이던 마린원을 향해 붉은색 레이저 빔을 쏘았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비밀경호국(SS) 요원에게 곧바로 포착됐다.

당시 마린원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해 있었으며 헬기는 버지니아주로 향하는 중이었다.

현장에서 체포된 윈클러는 수갑이 채워진 채 무릎 꿇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윈클러는 항공기에 레이저 포인터를 겨냥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1일 메릴랜드 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해병대 전용 헬기 마린 원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는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5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연방항공청(FAA)이 최대 3만2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행위가 조종사의 시력과 방향 감각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게

할 위험을 야기했으며, 저고도 비행 중인 마린원이 다른 헬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피로 워싱턴DC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마린원과 탑승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며 반드시 적발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윈클러는 레이저를 비추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이 행위가 불법임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윈클러는 평소에도 여러 사물에 레이저를 비추곤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공소장에는 당시 헬기 내부에서 레이저가 실제로 인지됐는지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당시 버지니아 주로 이동해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칸 코너스톤 인스티튜트'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한영혜 기자

트럼프 행정부, '애치슨 라인' 재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공개할 새 국방전략(NDS)에서 아시아 지역 방위선과 관련해 한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애치슨 라인'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3일 미국이 아시아 지역 방위선에 미군 시설이 많은 일본은 확실히 포함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관건은 한국과 대만을 넣을지 여부라고 분석했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냉전 시기부터 유지해온 대로 한국·일본·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본만 포함하고 대만을 배제할 경우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대만만 포함하고 한국을 제외한다면 북한의 강경 행보가 강화되고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일본만 포함하는 경우를 꼽았다. 이는 1950년 1월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발표한 극동 방위선, 이른바 '애치슨 라인'과 사실상 일치한다.

이에 대해 닷케이에는 "미국이 (한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북한에 줘서 한국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강하다"며 "북한과 중국이 더욱 강경해져서 분쟁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한국·일본·대만을 모두 포함하는 기존 방위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그러나 JD 밴스 부통령 등 대의 개입에 신중한 세력은 한국과 대만 방위에 미국이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닷케이에는 전했다.

한영혜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절인과 함께 인생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저"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퀄리티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각종 약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여성용 골프 의류,
가방 등 판매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미락조 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축

창간 24th 기념

한인 동포들의 든든한 벗,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인 사회를 위해
더욱 정진하는 언론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 환영합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주택매매, 상가매매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대통령, 유엔서 대북 ‘END’ 발표

(Exchange·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유엔총회 기조연설서 첫 공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3단계
“남북관계 발전, 북·미관계 정상화
END 이니셔티브로 냉전 끝낼 것”**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 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END 이니셔티브’로 지칭한 자신의 대북 평화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곱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유엔 무대에 데뷔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배포한 연설문에서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END 이니셔

티브를 소개했다. 그런 뒤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며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을 재확인한 것이다.

뉴욕=오현석 기자



이 대통령, 미국 동포와 간담회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가 잠시 걱정했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다. 뉴욕=김현동 기자

이 대통령 “비핵화 단기간 해결 어려워, 현실적 방안 모색할때”

**이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북·미 관계 정상화 노력 적극 지지
한반도 평화위해 국제사회 나서야”
비핵화에 앞서 교류·수교 강조
일각선 ‘북핵 묵인 가능성’ 우려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실현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인류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END 이니셔티브’에서 비핵화로 가는 전제가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서 북핵을 묵인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올 전망이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지원과 북·미 및 북·일 수교를 선제적으로 강조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다.

전날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전문 인력의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정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일정으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 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왼쪽)을 접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배석한 아데바요 오코레시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GIP) 회장. 김현동 기자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영 김(공화)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 원장과 진 새현(민주) 상원 외교위 간사, 크리스 쿤스(민주)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민주) 하원 외무위 간사 등 미국 상·하원 의원 4명은 면담 자리에서 이들은 “이 대통령 예방을 위한 의원단이 상·하원, 공화·민주당을 포함해 구성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

는 것”이라며 “조선·바이오·방산 분야 등에서 양국 산업·기술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의원들은 비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의회 통과에도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함한 제반 분야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해 나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선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해법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이 ‘피스 메이커’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 및 한반도 평화 구

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미 동포 300여 명과의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걱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 현지에서 첫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인공지능)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했다.

핑크 회장은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원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블랙록은 현재 12조5000억 달러(약 1경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과 함께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구성해 글로벌 차원의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 면담을 계기로 배경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핑크 회장은 AI-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석5조 통합보험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라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에 필요한?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한스 2025-2026년 스케줄		
항공 불포함 (인솔자)		
09/30(화)~10/13(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마	마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크	마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	마감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	마감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	마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조앤 한
12박13일 \$3,690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라이트		
9박10일 \$2,890		
11/26(수)~11/30(일) 팅스기빙 코스타리카		세라 정
4박5일 \$2,090 항공포함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사우디 아라비아 카	마감임박	
9박10일 \$5,190 SMALL GROUP TOUR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마감임박	
8박9일 인사이드 \$1,350부터 오션뷰 \$1,550부터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	마감임박	세라 정
5박6일 \$2,350 항공포함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재키 조
10박11일 \$3,590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애나 김
5박6일 \$2,190 항공포함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조앤 한
12박13일 \$5,150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데이빗 한
9박10일 \$4,190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페루)		재키 조
27박28일 \$20,500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14박15일 \$9,900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8박9일 \$6,5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조앤 한
9박10일 \$3,690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한상의 벚꽃축제		재키 조
12박13일 \$5,995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재키 조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조앤 한
8박9일 \$3,490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세라 정
8박9일 \$3,890 봄 특선!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애나 김
11박12일 \$3,790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세라 정
10박11일 \$3,590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조앤 한
12박13일 \$3,690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믹 투어		재키 조
11박12일 \$5,995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조앤 한
12박13일 \$4,490		
06/15(월)~06/28(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 아일랜드		재키 조
13박14일 \$6,695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07/16(목)~07/29(수)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재키 조
13박14일 \$6,695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08/15(토)~08/28(금) 그린랜드 + 아이슬랜드		재키 조
13박14일 \$12,990		
08/15(토)~08/22(토) 그린랜드 7박8일 \$5,995		
08/21(금)~08/28(금) 아이슬랜드 7박8일 \$6,995		
08/12(수)~08/18(화) 알래스카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태리		
10/12(월)~10/23(금) 포르투갈 & 스페인		

한스 동부 로컬 투어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 하세요!**

뉴욕 1박2일 10/2(목) 출발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목요일 출발 & 뉴욕 2박3일 10/27(월) \$650

3명이상 출발가능 당일투어 워싱턴 DC \$100 루레이동굴 \$125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899

미동부 캐나다 월요일 출발 5박6일 11/3(월) \$1,350

허드슨크루즈 NY, 화이트마운틴 기차, 뉴포트, 보스턴 3박4일 9/29(월)~10/2(목) **마감!**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나이아가라 유람선, 원월드 전망대,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포함
2박3일 10/6(월)~10/8(수) \$650

한국에서 오신 손님 걱정마시고 한스에 맡기세요! 편안한 리무진 버스로 모시겠습니다.

추석 특선

한스 대형버스로 떠나요~

스모키마운틴

딕시스탬피드 디너쇼/
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2박3일 10/24(금)~10/26(일)
\$899

가을여행

한스 대형버스로 떠나요~

버지니아 사파리 & 네추럴 브릿지

당일투어 10/25(토)
\$169

가을여행

중남미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3박4일
11월6일(목)~11월9일(일) \$1,210 항공 불포함
멕시코시티(과달루페 성당, 피라미드)-
뿌에블라(산토도밍고 성당)-출몰라(치유의 성모성당)

카리브해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캔쿤/푼타카나 올인클루시브 딜럭스 호텔+항공
(가격문의)

팅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
라빠스 생태공원
11/26(수)~11/30(일) **마감임박**
항공포함 \$2,090 인솔자:세라정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드 + 따바콘 온천
2026년 1/22(목)~1/27(화)
5박6일 \$2,35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엘리버드 세일!! 9/30까지 \$2,290

1/8(목), 1/12(월)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격문의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한스 단독 전일왕성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4/11(토)~4/18(토) 인솔자:재키 조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항공 불포함
서울-군산-목포-해남-순천-여수-진주-거제-외도-통영-안동-영주-원주-서울

교포 연합 (2025년 9/21, 10/12, 10/19, 11/2, 11/9 서울에서 출발)
내륙일주 6박7일 \$1,550 항공 불포함
전국일주(제주포함) 9박10일 \$2,350 항공 불포함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타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가조작 400억 챙긴 수퍼리치들 ... ‘패가망신 1호’ 나왔다

병원·학원 소유주 등이 1000억 동원 코스피 거래량 적은 ‘DI동일’ 표적 수만번 가짜거래, 주가 2배 끌어올려 작전세력 압수수색·계좌 동결조치

대형 병원·학원 소유주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원이 1000억원 규모 자금을 동원해 주가조작을 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힌 후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잡은 1호 사건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도 주가조작에 이용된 계좌 수십 개에 대해 지급 정지(동결) 조치를 했다. 지난 4월 주가조작 등 혐의가 있는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뒤 적용한 첫 사례다.

합동대응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친·인척 또는 학교 선배 사이다. 종합병원·한의원·대형학원 등을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오른쪽)이 23일 불공정거래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소유한 자산가 4명이 법인 자금과 주택 담보대출 등을 이용해 1000억원대 자금을 만들었다. 이 돈을 가지고 C자산 운용사 현직 임원, K자산운용사 전 임원, 상호금융사 현 지정장 등 금융 전문가 3명이 직접 주가조작에 나섰다.

이들은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 초부터 약 1년 9개월에 걸쳐 지분 3분의 1을 장악했고, 여러 계좌로 수만 번에 걸쳐 가짜 거래(가장·통정매매)를 해 주가를 2배로 끌어올렸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굳이 비용을 들여 수만 회에 걸쳐 했다는 건 일부러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소위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2023년 소시에테테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 때와 비슷한 수법이다.

이들 ‘작전 세력’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주문 인터넷 주소(IP)를 조작했다. 해당 종목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점도 이용했다. 그 결과 4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일부를 매도해 23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들은 현재도 관련 주식 100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 증권위는 계좌를 동결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를 마무리한 후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DI동일은 섬유 소재와 전자·전자 부품용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중견기업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DI동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88% 급락한 2만5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서태원 DI동일 대표이사는 입장문에서 “주가조작과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 기업으로서 당국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5건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금융위 부원장보)은 “다른 사건도 신속하게 조사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권위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A씨에게 부당이익의 2배인 486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온 첫 제재 사례다.

김선미·김남준 기자

여당 지도부도 몰랐다는 조희대 청문회 ... “법사위가 급발진한 것”

강경파는 “조, 사퇴 안하면 탄핵” 야당 “청문회 열면 삼권분립 사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데 이어 23일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법사위 독주’ 우려도 감지됐다.

김기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기

본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운 의원도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며 “(불출석하면 탄핵을 향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전날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법사위 소속이다.

이렇게 법사위에서 탄핵까지 거론하는 동안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이에 선 당혹감이 흘렀다.

전날 추미에 법사위원장으로 부터 조 대법원장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30일 열겠다는 내용을 미리 공유받지 못한 까닭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청문회 실시가) 사전에 상의는 안 됐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추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그런(청문회 개최) 얘기를 (사전에) 전혀 못 들었다”고 토로했다.

원내 지도부에선 “추 위원장이 정청래 대표와는 소통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만난 정 대표는 “청문회 개최를 미리 알

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권한영 대변인은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사위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대적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대로 (30일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박정희·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

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미에 위원장은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직격한 나경원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는 순간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이흥구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 장악을 시도하고 (법치) 파괴를 완성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김나한·김규태 기자

한학자 신병 확보한 특검 ... ‘국민의힘 집단입당’ 수사 속도

오늘 한학자·권성동 소환 조사키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 총재는 교단 자금을 활용해 사넬

백·목걸이 등을 구입한 뒤 이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한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해외 입·출국 기록과 교단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파기하도록 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강제로 국민

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켜 권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한 총재가 보고를 받고 승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의 경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특검팀은 한 총재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정진우·전민구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김영선 연방세무사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러니 고민되시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 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첼빌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첼빌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 우순 학군 싱글홈

\$1,90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각자의 진영에서 욕먹는 지도자, 그들이 ‘중도’다

1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류영모(71) 원로목사를 만났다. 그는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을 역임한 개신교계 지도자다. 대표회장 시절에도 류목사는 정치권에 민원을 하지 않았다. 인사 청탁도 넣지 않았다. 예산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다. 대신 하나님에 대해선 가감 없이 말했다. 그래서일까. 인터뷰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은 담백하고 명징했다. 마주 앉은 류영모 목사에게 ‘이 시대의 예언자’를 물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자’란 뭔가.
“세상에서는 ‘예언’을 점쟁이처럼 미래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는 ‘미리 예(豫)’자를 쓴다. 기독교의 예언은 다르다. ‘말을 예(預)’자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예언자라면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께서 보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오징어 게임’이 왜 전 세계를 강타했겠나. 이 시대를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본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그게 최고의 선(善)이다. 지금 지구촌이 그렇다. 소통하고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는 막을 내렸고,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둔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우방도 이익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권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떤가.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한다. ‘정치(政治)’라는 글자를 바라. 그 속에 바를 정(正)자가 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바르게 하라는 말이다. 그래서 국민을 평화롭게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상대를 죽여서 자기 진영을 더 강화하려고만 한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교통(交通)’이란 말이 있다. 끊어진 두 끈을 묶어준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정치권은 어떤가. 끈이 끊어진 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막달리고 있다.”

이 말끝에 류영모 목사는 “양쪽 진영에서 욕먹는 사회 지도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이 중도에 선 사람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심에 서는 것이 정치’라고 했다. 그게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 정치는 양극단의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거다. 만약 사회 지도자가 양쪽 진영에서 욕을 먹으면,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고 있



류영모 목사는 한교총 대표회장이 될 때 취임식을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서 했다. 초기 선교사들의 정신, 그들의 피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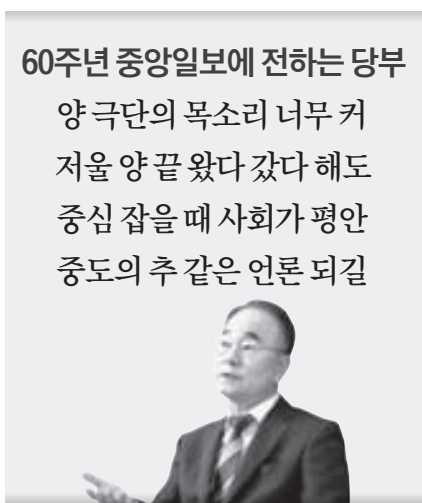
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

-양쪽에서 욕먹을 각오로, 여야를 향해 조언을 한다면.

“먼저 국민의힘에 하고 싶은 이야기다. 강을 건너가라.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털어내라. 그런데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넘어,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제발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말한다. 정치가 뭐냐. 양극단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이 아니다. 중도를 잡는 싸움이다. 그래야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한마디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 자기 진영의 환호와 박수에 중독되지 말아라. 거기에 빠져버리면 점점 더 모진 말을 하게 된다. 민주당에는 ‘개팔’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진정한 정치가 뭐냐. 나는 그 강성파들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본다. 한 시대에 박수받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 역사에 남는 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류영모 목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성경 속 ‘산상수훈’을 꺼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런 대목이 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여야를 막론하고 평화를 만들지 않는다. 말의 온도가 너무 차다. 날카롭기 짝이 없다. 정치가 선진국으로 가



려면 말이 따뜻해야 한다. 말에 뿜위가 있어야 한다. 차고 날카로운 말로 독소를 뿜어내는 사람은 자기 진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에 남는 지도자는 결코 될 수 없다.”

-만약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나.

“사회적 워딩으로 하면 이렇지 않을까. ‘건강한 협력, 건전한 비판’. 올바른 정책과 바른길에는 건강한 협력을 하라.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옛날 예언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건전한 비판을 하라. 그러지 않으실까.”

-AI(인공지능) 시대다. 편리하다는 사람도 많고, 두려다는 사람도 많다. 어찌 보나.
“나는 과학 문명의 비행이라고 본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100년보다 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지도 모른다. AI 시대가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저희 교회도 다음 달에 포럼을 한다. 주제는 ‘AI, 너에게 교회의 미래를 묻는다’이다. AI를 안 쓸 수는 없다. 그런데 쓰다 보면 위기가 온다.”

-어떤 위기가냐.
“경험의 멸종이다. 가령 설교를 예로 들자. 앞에서 말했지만, 설교는 예언(預言)이다. 설교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짚어지고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실어나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AI를 통해 손쉽게 설교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라. 거기에는 해산(解産)의 고통이 없다. 생명력이 사라진 글이 나온다. 거기에 의지해서 계속 설교문을 만들다 보면 영적인 뇌가 망가지지 않겠나. 인공지능에 빼앗겨선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

-인공과 인공지능, 비람직한 관계 설정은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협력자로 남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AI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경험의 멸종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회뿐만 아니다. 개인이나 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류영모 목사는 중국 이야기를 꺼냈다. “마오쩌둥은 ‘혁명’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이 통치 이념이었다. 시진핑의 통치 이념은 ‘AI 디지털 과학기술 문명사회’다. 그는 ‘동풍이 서풍을 이길 때까지 우리는 과학기술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과학자(科學家)’라고 부르지 않더라.”

-그럼 뭐라고 부르나.
“‘과학가(科學家)’라고 부른다. 예술가처럼 ‘가(家)’자가 붙는다. 장인 정신을 존중한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의대·법대에 수재들이 너무 많이 몰린다. 과연 미래에도 그럴까.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지금과 다르다. 자신의 재능과 비전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 과학자들이 서너 명 들어갔다. 잘한 일이다. 나는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정부 부처에 정치인들이 꼭 가야 하는 자리인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과학자들이 필요한 자리에는 과감하게 등용해야 한다. 중국은 다르더라.”

-어떻게 다른가.
“중국 정부에서 376명이 장관급이다. 그중에 50%가 과학가 출신이다. 중국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들이 과학가다. 중국의 성장은 우리에게 위협이다. 지금은 과학기술 혁명의 시대다. 미래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지지자를 얼마나 끌어모을 것인가. 고민하지 마라. 우리 정부의 정책도 철저히 다음 세대 중심으로 꾸려져야 한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이재명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다.”

-올해는 한국 교회 선교 140주년이다. 목사님께서 보는 의미는.
“140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 암울했다. 콜레라 등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은 쥐 귀신이 붙었다고 여겼다. 환자 집에 고양이 그림을 갖다 붙일 정도였다. 그랬던 나라에 선교사들이 교육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다. 생각해 본다. 140주년의 의미가 뭘까. 그건 교회가 교회다워지라는 뜻이다. 초기 선교 정신, 그들의 활동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올해는 중앙일보 창간 60주년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달라.
“한국 사회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양극단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다. 이들이 과연 우리 국민의 보통 목소리를 담고 있을까. 저울의 양 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잡는 건 중도의 목소리다. 중도가 탄탄할 때 저울 전체가 평화롭다. 중앙일보가 저울의 추처럼 중도의 길 걸어가는 언론사 되길 기대한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1477 Hampton Hill Ct, McLean, VA

SALE

\$1.3M

6501 Divine St, McLean, VA

SALE

\$2.85M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SALE

\$970,000

8220 Crestwood, McLean, VA

UNDER CONTRACT

\$1,225,000

2726 Gallows Vienna, VA

UNDER CONTRACT

\$279,900

8350 Greensboro Dr, McLean, VA

SOLD

\$445,000

사업체 매매

델리샵(DC)

\$150K

자녀 5년 간 로리 정이 이 단지에서 가장 많이 매매한 에이전트라 동네 주민이 알아 달라고 연락 줌. 9/25 마켓에 올라 올 예정

NEW

Focal Point Homes 빌다가 지은 4년 된 집, 주인의 사랑과 잘 관리된 집, 방 7, 욕 6.5,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NEW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룸

마켓에 올라오자마자 3일 안에 계약 완료. 로리는 파는 것도 잘 함. 위 1477 Hampton Hill 셀러가 소개. 10/14일 세를예정

NEW

오픈하우스 때 온 손님을 바이어로 만들, 셀러/바이어 So Happy 9/30일 세를예정

NEW

바이어가 딱 원하는 조건인 집 8/18 세를먼트 완료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올 거울/4년 봄에 파던 나을 주재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10월 ~ 내년 1월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7608 Lee Landing Dr, Falls Church, VA	NEW	RENT \$2,600 병 3, 욕 1.5, 통베로우 중, 맥클린 고등
2901 Gettysburg Sq, Vienna, VA	NEW	3년 RENT 주재원 지난 6년간 세입자도 로리 손님. 이번에도 마켓에 내 놓지 않고 바로 연결 진행 중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RENT	주재원, 공항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한 주재원. 주인독 에이전트를 잘 아는 사람이랑 만났음.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RENT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erville, VA	3년 RENT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좌골 신경통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어깨, 무릎 통증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중국, 영·수학원 없는곳 AI 코딩학원은 꼭 있다

중국 하이테크 굴기, 그 뒤엔 교육 산동성 서점, AI교재·학습기 불티 알리바바·텐센트 교육시장 참여 “인재는 희소 자원, 평범 교육 안돼”

지난달 15일 산동성 웨이하이에 있는 신화서점은 새학기 맞이 인공지능(AI) 교재를 찾는 이들로 북적였다. 쏘냐오 만 매니저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7000 위안(약 137만원)~1만2000위안(약 235만원)짜리 인공지능(AI) 학습기가 300대 팔렸다”고 소개했다. AI 음성인식 분야 선두업체 아이플라이텍이 AI 교재 시장을 선도하는 가운데, 텐센트·알리바바·화웨이까지 AI 교육시장에 뛰어들었다.

서점 인근의 코딩학원 ‘베타(貝塔)스쿨’. 저우자성(周佳聲) 베타스쿨 원장은 “중국 전역에 영어·수학 학원은 없어도 코딩학원은 반드시 있다”고 소

개했다. 사교육 억제 정책을 펴는 중국에서도 “AI 코딩학원은 예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서점과 코딩학원이 붐빈 건 이달 초 중국 당국이 초·중·고교에 ‘AI 수업’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국회 문턱을 못 넘고 AI 교과서 도입이 ‘자율선택’으로 봉합됐다.

양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대하는 태도도 대조적이다. 지난해 화이진펑(懷進鵬) 중국 교육부장(장관)은 “혁신적인 청년 대학 교수들이 과학 ‘무인지대’에 도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 인재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완전히 바꾸겠다”고도 했다.

반면에 지난 2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최고진 당시 후보자는 “과도한 경쟁체제를 허물겠다”면서 평준화 교육을 강조했다. 또 “지방대학에도 서울대 수준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을 속기록에 남겼다. 혁신·인재·보상을 강조한 중국 교육부장과 경쟁을 허물겠다는 한국 교육장관이 대조를 이뤘다. 올림피아드에 대한 입장도 판이하다. 검증된 천재인 올림피아드 대표가 일류대학으로 직행하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2010년부터 올림피아드를 대입 전형에 기재하지 못한다. 사교육 과열 방지가 이유다. 중국에서 수학·물리·화학·생물·정보 등 5대 국제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면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없이 명문 베이징대와 칭화대 입학이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1977년 덩샤오핑이 우수 학생의 월반을 장려한 수월성(秀越性·엘리트) 교육 정책 덕이다. 바오쑹생(保送生, 보종 추천 학생) 제도의 탄생이다. 자오치양(趙啓陽) 중국정보올림피아드(NOI) 과학위원회 주석은 “뛰어난 인재는 본래 희소한 자원”이라며 “경쟁을 막겠다고 모두에게 평범함을 강요해선 안 된

다”고 말했다.

올해 베이징대는 200명, 칭화대는 132명의 바오쑹생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 올림피아드 대표는 각각 120명과 102명이었다. 중국의 첨단 과학은 바오쑹생 천재가 이끈다.

웨이둥이(韋東奕·34) 베이징대 수학과 교수가 대표 인물. 2008년과 2009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중국 대표로 출전해 2년 연속 만점을 받은 수학 천재다. 웨이 교수는 유체의 흐름을 계산하는 나비에-스토크스 편미분방정식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다. 그의 연구는 전자기 개발에 필수인 유체역학의 난제를 해결했다. 지난 9·3 열병식에서 선보인 극초음속 미사일 동풍(東風)-17, 임지(鷹擊)-21 미사일의 작동 원리도 비슷하다.

이처럼 중국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흑기술(블랙테크, 혁신적인 신기술)’로 미국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쉬홍제(徐洪傑)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 학술위원회 주임은 기존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연료로 삼는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말할 때 중국은 일류대학과 일류학과의 숫자와 실력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쌍일류’ 건설을 10년째 추진하고 있다. 성과도 났다. 영국 대학평가 기관 QS 순위에서 2015년 57위이던 베이징대는 올해 14위, 푸단대는 같은 기간 71위에서 39위로 올랐다.

중국은 철저하게 대학끼리 경쟁시킨다. 5년마다 쌍일류 리스트를 바꾸는데 베이징대, 칭화대도 예외였다. 구자익 서경대 혁신부총장은 “중국의 ‘쌍일류’와 한국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정책 목표, 집행의 구체성에서 차이가 크다”며 “중국 대학에선 네이처 인덱스 논문 1편당 최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신경진 기자**

중국 유니콘기업 20%는 창업 톱3 대학이 기르고

(기업가치 1조원 이상)

학내 창업센터, 기술경영 인재 양성 정부는 강소기업 골라 집중 지원

2019년 문을 연 중국 스타트업 진위신녕(金羽新能)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소거인(小巨人)’ 기업이다. 창업 3년 만에 전국 규모의 혁신 창업 대회에서 금상을 거머쥔 뒤,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로부터 3년간 최대 600만 위안(약 11억6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보조금·연구개발준비금·세제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2차전자·배터리를 개발하는 이 회사의 뿌리는 베이징대 연구실이다. 응용지질학을 전공한 창업자 황두빈(黃杜斌) 박사는 신에너지 연구를 탐독하던 중 해당 연구에 이끌렸다. 그는 연구실에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 성과를 냈고 이를 토대로 창업했다.

인공지능(AI)·로봇 등 혁신 기술 시대에 중국 대학은 창업 거점이 됐다. 과학기술 인재가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베이징에서 만난 베이징대 혁신창업센터 류더잉(劉德英) 원장은 “과거엔 사업 모델(BM)만 있으면 투자금을 받아 창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기술 없는 창업은 없다”고 말했다. “좋은 아이템과 자금보다 중요한 건 기술을 아는 인재”라고도 했다.

인민일보 계열 증권시보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중국의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대부분이 BM에 의존했다. 그러나 2020년대 기업 육식 가리기가 이뤄진 뒤 ‘너도나도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현재 베이징대를 비롯해 칭화대의 ‘X랩’, 저장대의 ‘ITP(Intensive Training Program)’, 상하이교통대의 ‘다링하오(大零號) 인큐베이터’ 등 주요 대학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후룬(胡潤)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은 유니콘 기업을 배출한 주요 대학은 칭화대, 상하이교통대, 저장대다. 세 학교가 배출한 기업이 중국 전체

유니콘의 20%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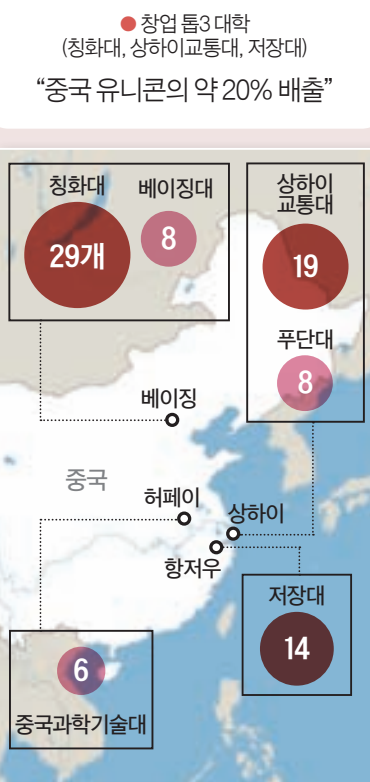
저장대는 1999년부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ITP반을 운영해 기술과 경영을 아우르는 인재를 길러왔다. 딥시크 CEO 랑원펑(梁文鋒)도 이 과정 출신이다. 아이니 저장대 국제교류처 부처장은 “매년 경영학과가 아닌 2학년 생 50여 명을 뽑아 창업과 경영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저장대는 올해부터 비(非)AI 전공생을 위한 ‘AI+X’ 특별반도 신설했다.

대학은 창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창업 대회를 열어 투자자와의 접점을 넓힌다. 베이징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활발하다. 지난해 우한(武漢)시에서 열린 ‘우한컵’을 비롯해 바이오 산업이 발달한 스자좡(石家莊), 제조업이 강한 취안저우(泉州) 등에서 대회를 열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대회에도 적극적이다. 지역은 창업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학은 기반을 다지는 구조다.

대학이 인재를 키우면 다음 단계는 정부가 개입한다. 대표 사례가 ‘전정특신(專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화)’ 기업 선정이다. 중국 정부가 육성하는 강소·중견기업으로, 성(省) 단위 선발을 거쳐 중앙정부 인증을 받으면 소거인 기업으로 집중 지원된다. 2023년 말 기준 전정특신 중소기업은 13만5000개, 이 가운데 중앙정부 인증을 받은 소거인은 1만2950개다. 투자펀드도 가동한다.

지난 3월 중국 정부는 200조원(약 1조 위안)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인도(引導) 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AI·양자·바이오·수소배터리 등의 창업 초기 단계에 투자한다. 이를 두고 관영 CC-TV는 “창업 영역의 항모급 펀드”라고 표현했다. 중국은 대학·정부·민간이 긴 호흡으로 인재를 키우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대학·정부·민간이 곧 중국 창업 생태계의 삼박자 저력이다. **베이징=어환희 기자**

2025년 중국 주요 대학의 유니콘 기업 배출 현황



딥시크 같은 토종기업, 돌아온 ‘바다거북’ 이 키웠다

(하이구이·돌아온 해외유학파)

중국판 챗GPT인 딥시크, 미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려 ‘경계 대상 1호’로 삼은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즈푸(智譜)는 공통점이 있다. 딥시크 설립자인 랑원펑(梁文鋒, 저장대)과 즈푸 설립자인

탕제(唐杰, 칭화대)가 유학 경험이 없는 ‘토종’ 인재인데도 독보적인 AI 기술을 선보였던 점이다. 중국 대학 출신의 혁신 인재가 배출되는 건 ‘하이구이(바다거북·해외 유학파 중국인)’들이 중국

으로 돌아와 후학을 키운 덕이다.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에서 테뉴어(종신교수)를 박차고 중국에 돌아온 쑨난(孫楠) 칭화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쑨 교수는 칭화대를 졸업한 뒤 하

버드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교수직까지 얻었다. 당시 미국 연봉은 15만 달러(약 2억원)였다. 반면에 칭화대는 연봉 100만 위안(약 1억9276만원)과 함께 연구팀을 준다고 했다. 34세였던 2020년, 쑨난은 중국으로 돌아갔다. 중국 반도체 자립에 인생을 걸기 위해서였다.

중국은 천재 쑨난을 밀어줬다. 그는 2021년 칩 설계기업 ‘스모 마이크로일렉트릭스’를 세웠다. 스모는 설립 1년 만인 2022년 투자금 수익 위안을 따냈다. 그의 팀은 전기차·전력망 등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 50여 건을 개발했다. 이에 중국은 일부 분야에서 ‘수입산 대체’란 쾌거를 거뒀다. **서유진 기자**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hon)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National Certified TF-CBT Supervisor (VA)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중언어자 환영

703-259-5617, 410-241-2520

히토류, 중국만큼 많다 ‘북극 보물섬’ 그린란드

진짜 무궁무진? 그린란드 자원 얼마나 되길래



175억~484억 배럴

원유



4190억㎥

천연가스



3610만~3850만t

히토류



리튬 등 34개 핵심 광물 중 27개 보유

기타

12일 그린란드의 나르샵 빙하에서 떨어져 나온 유빙 사이를 한 선박이 지나고 있다. 북극 해빙 면적이 빠르게 줄고, 막대한 자원과 지리적 장점을 보유한 그린란드의 가치가 뛰면서 각국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상조 기자

**트럼프 “그린란드 갖고싶다” 눈독 왜
핵심광물 27개 보유, 원유도 풍부
미군기지 활용, 러·중 밀착도 견제
현지선 “북극항로 개발 땀 급발진”**

지난 11일 그린란드항공 A330-800 여객기가 짙은 안개를 뚫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 공항에 착륙하자 승객 사이에 박수가 쏟아졌다. 낙후된 공항 시설과 날씨 탓에 회항하는 일이 잦았던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곳의 오랜 전통이다. 그린란드는 북극점에서 가장 가까이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여전히 척박한 땅이다. 국토의 99%는 빙하에 덮여 있고, 거주지로 개발된 건 서쪽 지역 일부다. 땅은 넓어도, 인구는 5만7000명밖에 안 된다. 수출의 약 95%를 수산업에 의존하는데 연간 국내총생산(GDP)은 33억 달러로 한국의 약 0.2% 수준이다. 누크 주민 살리크 올레센은 “지난해 새 공항이 문을 연 뒤로 관광객이 늘고, 도시에 활력이 생겼다. 더 발전할 거란

기대감이 든다”고 말했다. 마리아아르렌 그린란드대 북극사회경제학과 교수는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발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다. 장밋빛 청사진은 그린란드만의 희망이 아니다. 지난 1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이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린란드의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때다. 미국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막대한 자원이라는 분석이 많다. 올해 1월 그린란드 최대 히토류 매장지인 탄브리즈 광산은 미국 크리티컬 메탈스에 매각됐다. 탄브리즈는 내년 8만5000t의 히토류 정광(실제 사용하는 화학물·금속의 전 단계)을 생산하고, 이후 연간 42만5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이 광산은 중국 기업에 팔 계획이었지만 틀어졌다. 그레그 반스 탄브리즈 CEO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중국에 매각하



그린란드 누크 시내 뒤로 드러난 설산.

지 말라는 압박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그린란드 지질조사국(GEUS)은 그린란드 내에 약 3610만t의 히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의 히토류 매장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리튬 등 핵심 광물 34종 중 27개가 발견됐고, 인근 해상을 포함해 175억~484억 배럴의 원유와 4190억㎥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 또 그린란드는 향후 북극권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극항로의 거점이라서다. 서쪽으로는 북서항로(NWP)가, 동쪽으로는 북극횡단항로(TSR)가 지난다. 이누이트북극이사회(ICC) 의장인 사라 올스비그는 “최근 누크를 중심으로 대형 크루즈가 다니기 시작한 건 그린란드 주변 항로 개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많은 배가 다니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해안 인프라 확충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에 10억 덴마크크로네(약 3500억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개발이 더딘 그린란드 동쪽에 공항을 짓고, 심해 항구를 건설한다. 미국은 1950년대부터 그린란드 내 톨레 공군기지(현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조기 정보를 제공한다. 북극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러시아는 2015년 북극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사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미국 국방부는 2023년 피투피크 기지 현대화 작업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속에 그린란드를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속하지만 엄연한 자치 국가다. 올스비그 의장은 “경제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이라고 말했다.

누크(그린란드)=장원석 기자

북극과 먼 나라도 ‘북극전쟁’

북극 자원과 해상 운송 인프라 선점을 위한 신(新)영토전쟁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북극은 주변국이 아닌 한 접근이 어려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지만, 북극항로가 열리면 얘기가 달라진다. 비(非)북극권 국가가 탐내는 영역이 된 배경이다. 23일 해양수산부와 각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 ‘중국의 북극 정책’이라는 백서를 발표한 후 북극 자원 개

발과 항로 개척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백서에서 자국을 ‘근(近)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북극 문제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극을 일대일로(一帶一路) 범위에 포함해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이때 나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북동항로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부터 국영선사 COSCO를 중심

으로 수십 차례 북동항로를 운항했다. 올해 러시아 아르한겔스크항에는 중국 선박이 20회 입항할 예정이다.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다. 중국은 북극권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생산·수출하는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 중이다. 지분 구조를 보면 중국 자본 비중이 30%로 러시아(50%) 다음이다. 캐나다는 지난달 ‘북극 경제 및 안보 회랑’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북서항로 중간쯤에 위치한 그레이

스만에 심해항을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극 인근에 매장된 천연가스와 광물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중장기 전략과 맞닿아 있다. 프랑스는 10년 내 북극이 새로운 지정학적 충돌 지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7월 처음으로 북극 전략을 수립했다. 그린란드와 스발바르 제도(노르웨이령) 등을 전략 우선 지역으로 설정하고, 극지용 장비 개발 투자를 늘린다. 인도도 지난달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 LNG·석유 등을 포함한 북극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은 2020~2022년 해방연구선 폴라슈테른호를 활용해 겨울철 해빙을 연속 관측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주도했다. 영국은 북극권 원주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 ‘시누크 프로젝트’로 북극이사회에서 호평을 얻었다. 일본 극지연구소도 지난 4월부터 북극권 연구 강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한국은 국내 유일의 쇄빙선 아라온호를 활용해 다국적 연구 등에 참여하면서 북극권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

김경하·장원석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클립턴 싱글홈

UNDER CONTRACT

\$1.5M

방5/화4.5/차고3, 1.05 에이커 새 지붕, 새 HVAC

페어팩스 타운홈

RENT

\$3,300

방3/화2.2/차고1, End Unit 편리한로케이션, 관리잘 된 집

센터빌 타운홈

RENT

\$3,000

방3/화2.5/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 할, 굿로케이션

스프링필드 타운홈

RENT

\$3,000

방2/화2.2, 2 Assigned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할, 교통편리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헬렌 서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전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9월 가을맞이 Special SALE

최신 제품으로~
업계최초 **GH NATURAL HEALTH GH 자연건강**

현재 매장내 체험가능

입정기념 20%세일!

102개의 6열 지압봉
중간 마진의 거품은 소옥~ 빼고

가격은 내리고
성능은 올리고

무이자 할부
최고 **36** 개월

지압 침대의 발명자가
최초 설계한
GH 오리지날 제품

102개의 지압봉 + 2 WAY 시스템 + 1-SHOT 침대

- 업계최초 **102개의 지압봉**으로 구성
-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 **인체 공학적** 특수 설계 (지압봉 편심방지기능 탑재)
- 강력한 파워를 기반으로 한 **소음 최소화**
-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동작중인 지압봉의 **위치표시**

지압 침대의 특징

2-WAY SYSTEM으로 편리한 기능 강화 **지압, 마사지, 온열** 등 다양한 기능 탑재

↑ 체온 1C 상승하면 ↑ 면역력 40% 상승

지압봉 모션

지압봉 기계

온열 지압 카우치

온열 지압 상감 평상

본토 휴침대는 세계 최초로 장판을 덮지 않고 고온에 굽지도 않고, 화학성분을 단 1%도 사용하지 않은 **채소를 키워서 먹을 수 있는 생황토로 만들어진 '누드 휴판'**을 사용한 자연주의 제품입니다.

ECO

게르마늄 카우치 싱글침대 평상

sale

sale

장운정의 휴표 휴 매트

휴표 휴침대 워싱턴 대리점

원적외선 명품매트

대(竹)와 황토의 만남

황토를 600도에서 고온숙성하여 만든 황토볼을 원료로한 휴표 휴매트는 전면은 최고급 인조양털, 후면은 시원한 고급 대(竹) 자리를 부착하여 침대 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사계절용 만능 매트입니다.

▶ 전면: 고급 인조 양털
▶ 후면: 고급 대(竹) 자리

황토세라믹볼 원적외선 체내흡수 전자파 완전차단

3층 피복구조 무자계열선 적용으로 안전한 휴표휴매트

해초를 고아 황토로 빚어 만든 휴표 휴침대와 산소 발생 특허기술이 만나 탄생한 산소를 공급하는 휴침대

• 황토에 한약재를 넣고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침대
• 높은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침대
• 산소와 피톤치트를 공급하는 침대
• 산림욕 효과
• 솔잎뜸질 찜질효과

원적외선 명품매트

버지니아 워싱턴 월딘 지정 대리점

월딘편백반신욕기

입체발열 시스템으로 열효율 20%UP!

1 자연 그대로 정성으로 만든 친환경 반신욕기
2 무도장 처리하여 전통 찜질방 방식으로 제작
3 100% 300년이상 최고급 라오스산 히노키 원목
4 천연 피톤치드의 놀라운 산림욕 효과
5 3중 고온 안전처리
6 전자파 안전 인증 제품
7 5개 히터의 입체식 발열 시스템
8 세계 최초 미립자 스팀 기능
9 원적외선 특수 세라믹 방열판 히터 장착

\$5,000
\$3,500 빅빅세일가

명작의 감동
건강, 반신욕의명품

최고급 원목에서 나오는 풍부한 피톤치드
원적외선과 찜질들의 효과로 완벽한 반신욕을 만들어 드립니다.

본토헬스 반신욕기 건식 반신욕기

\$1,499 \$999 +tax

운동 전후에도, 산전 산후 관리에도,
일상생활 체온 관리에도, 혈액 순환에도 OK!

1 탁월한 발열 시스템 3 간단 편리한 작동
2 튼튼한 뉴질랜드 원목 4 우수한 안전성

절찬리 판매중
최고의 퀄리티~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가격~

건식 반신욕기
7가을 채우고 4가을 푸세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목속까지 시원한 수직 지압 마사지!
Made in KOREA
1/4마력
강력모터의 파워 발목펌프 자동운동기의 특징
하루에 5분만 사용하셔도 몸이 달라집니다.
혈압, 당뇨, 혈관질환 개선효과, 오십견, 관절통증 완화 효과

Hand/Wrist Massager
오사키 손목 마사지기 Osaki OA-AA01
손목, 손바닥, 손가락 마사지 합니다.
\$150 \$129

NURIEYE-5800
눈리아이 눈 마사지기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
피로한 눈, 뻑뻑한 눈곱, 이물감, 뿌연시야, 눈부심, 충혈

Osaki OS-RK181
눈 마사지기
• 에어백 마사지
• Shiatsu 지압
• 온찜질 / 진동
• USB 충전
• 내장 스피커
\$129

★히트상품★
마사지건
헤드 진동마사지
딥 티슈 마사지 건

바누 banu
저당 밥솥
밥솥만 바뀌도
탄수화물이 빠진다!

실드 라이프
전자파 차단, 자동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보온매트
전자매트 시장점유 1위 차지

일월 개화몽 매트
2020년형 업그레이드
황토볼 원적외선 매트

기모극세사 일월 온열매트
온 가족 따뜻하고 편안하게~
워셔블 매트로 물세탁 가능
일월의 최첨단 7중 안전 시스템

토르마린 매트
토르마린의 효능
• 원적외선 방사
• 미네랄 분출
• 음이온의 계면활성 효과
• 깊은 숙면으로 유도

한일의료기 마루형 전기매트
한정판매/조기품절/가능 제품
중형 **\$199** 대형 킹사이즈 **\$399**

스팀보이 온수매트
난방비 걱정없이
올 겨울 따뜻하게~
스팀보이는
환경 호르몬
Safety Zone

우리말 바꾸기

‘뒤치닥거리’는 할 수 없다

대학수능능력시험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3년 내내 노력을 기울여 온 건 학생들뿐만이 아닌 것이다. 뒷바라지에 전념한 부모들 또한 그 노력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을 테다. “이제 곧 아이의 뒤차다꺼리가 끝난다고 생각하니 시원섭섭하다.” “아이 뒤차다꺼리를 어서 끝내고 내 인생을 찾고 싶다”고 호소하는 학부모가 많다.

‘일을 치러 내는 일’을 나타내는 말로 ‘치다꺼리’가 있다. 그런데 이를 ‘치닥거리’로 쓰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다.

우리말은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많아 ‘치다꺼리’가 ‘치닥거리’를 소리나는 대로 쓴 잘못된 표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바른 표현은 ‘치다꺼리’다.

의존명사인 ‘거리’는 ‘마실 거리’ ‘일할 거리’ 등에서와 같이 어미 ‘-을’ 뒤에 쓰여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쓰이는 대상이나 소재를 가리킨다. 또 ‘반찬거리’ ‘이야깃거리’ 등에서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재료’ ‘대상’ ‘소재’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의존명사 ‘거리’가 붙어 ‘치닥거리’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려면 ‘치닥’이라는 낱말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말에 ‘치닥’이라는 단어는 없다. 어원이 불분명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게 원칙이므로 ‘치다꺼리’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세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등록은 깨끗하게, 진입은 가격으로



정윤재
사회부 기자

추첨은 남되, 추첨장 입장은 먼저 엄선되는 구조로 방향이 바뀌는 중이다.

이 흐름은 제도 설계와도 맞물린다. H-1B를 쓰려면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CA)로 직무·임금·근무지·기간을 신고·공개하고, 회사 내부 실제 임금과 지역 통상임금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최저선으로 지급해야 한다. 파업·직장폐쇄 중 대체 투입 금지와 회사 사유의 비생산 시간 임금 지급 의무까지 붙어 있어 “미국인 연봉 12만 달러 자리에 H-1B 7만 달러”식 임금 덤핑은 애초 계산이 잘 맞지 않는다.

이번 변화는 이 기본 구조에 입구의 비용 필터를 한 겹 더 얹어, 많이 넣는 복권 게임을 제값을 치르는 커밋 게임으로 바꾸는 단계다.

여기에 포고령 제4조가 다음 수순을 분명히 걸어뒀다. 노동부에는 통상임금 수준을 재조정하는 규정 개시를, 국토안보부에는 고임금·고숙련에 우선순위를 두는 선발 기준 마련을 각각 지시했다.

등록을 깨끗하게 하고, 진입을 가격으로 확인하며, 기준을 규정으로 고정하는 삼중 여과가 제도 안에 자리 잡도록 설계한 것이다.

단기 파장이 있다. 초기·영세 기업에는 채감 비용이 커질 수 있고, 일부 직무·지역에서는 구인 비용과 채용 리드타임이 늘 수 있다. 전환기에는 행정 안내와 심사 기준이 현장에 퍼지는 동안 일시적 혼선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접수분으로 한정되고 12개월 한시이며, 전략 분야·핵심 인력에는 국가 이익 예외가 열려 있다. 축은 ‘채용을 막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책임을 지고 들어오느냐’로 옮겨가는 중이다.

평가는 데이터로 하자. 10만 달러 납부는 9월 21일 이후 접수분부터 본격 작동했으니, 효과의 본 무대는 2026 회계연도 말과 2027 회계연도 초에 드러난다. 그때 우리는 등록·추첨의 중복 축소 폭, 승인 분포에서의 고숙련 유지와 중소 스폰서 진입률, 임금·선발 기준 개정 이후의 실제 임금 분포 변화를 보면 된다.

지금까지의 사실만 놓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하다. 제도는 문을 닫지 않았다. 추천장에 아무나 들어오던 길을 정리했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쪽만 남게 만드는 길로 조용하지만 뚜렷하게 방향을 틀었다.

열린광장

희생 위에 빛난 9월의 승리



이재학
LA 6·25 참전유공자회
수석부회장

는 불굴의 의지였다.

9월의 기적과 비극은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전한다. 자유와 평화는 결코 가져 주어지지 않으며, 오직 피와 희생, 땀과 눈물 위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전쟁의 불길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소총을 꺼안은 채 어린 학도병은 “엄마”를 목터지게 부르다 스러져 갔다. 꿈에도 보이는 생생한 기억이다.

그리고 10월 1일, 마침내 38선을 넘어 북진이 시작되었고 평양 입성, 압록강까지의 진격은 민족사에 드물게 찾아온 통일의 문턱이었다. 그러나 환희는 오래가지 못했고 중공군의 대규모 인해전술 개입으로 국토 통일의 꿈은 바로 문전에서 무너졌으며 우리는 천추의 한을 안은 채 후퇴의 길로 내몰려야 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좌절이 아닌 끈질긴 재기의 몸부림이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바로 그날의 젊은 영령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선물이다. 그들의 희생은 한강의 물결처럼, 태극기의 바람결처럼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 쉰다. 그들의 마지막 눈빛, 얼어붙은 산야에 피로 뿌리고 간 이름 없는 용사들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년 9월을 맞을 때마다 단순한 기쁨을 넘어, 역사의 무게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승리와 좌절, 희망과 한(恨)이 교차한 이달을 기억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책무다. 그것은 수많은 젊은 생명의 희생이 남긴 귀한 유산이다.

9월에 펼쳐이는 하늘의 태극기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민족의 표상이다. 민족의 기적과 비극이 새겨진 불멸의 장이며, 후손들에게 남겨진 영원한 과제다.

기적과 비극이 교차한 9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유의 가치를 지켜낼 때, 비로소 9월은 절망의 달이 아니라 희망의 달로 다시 빛날 승리의 달이 될 것이다.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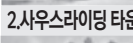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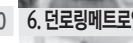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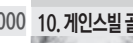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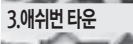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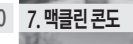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Coming Soon	RENT	SOLD	SOLD
1. 우드브리지 싱글  Coming Soon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95/234	5. 첼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4, 화3.5, 4,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286/50/lees comer rd	9. 애쉬버튼 하우스  \$3,300 전체마루, 2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2. 사우스라이딩 타운  Coming Soon \$645,000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6.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커 메나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3. 애쉬번 타운  Coming Soon \$670,000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델라스 공항	7.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1. 애너데일 싱글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뜰,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차까지 놀음, 동네시세 보다 신만발이상 뽀진, 395/236/495/95/66	
4. 왓슨 하이, 프리스트마일  \$1,450,000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8. 센터빌 벽돌타운  \$589,000 방 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12.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메이커 숲속, 6,700sqft, 방 5, 화 5.5, 3차고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벽난로 하우드도 바릭 • 선room, 고급 조명, 트레이아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 최신 HVAC, 잠수 시스템			

아와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와 주방, 벽난로, 연못, 분수, 테코,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교

\$1,699,000

1209번 도전이 영근 '기적의 벼씨', 배고픔에서의 해방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쌀은 우리에게 돌도 없는 에너지원이다. 남아도는 쌀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이는 요즘이지만 한국사에서 쌀이 넉넉한 적은 거의 없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수 진성의 '보릿고개' 첫 구절이다. '주린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던 그 세월'에 대한 회한이다. 불과 반세기 전의 풍경이다. 그때만 해도 새하얀 쌀밥 한 그릇은 대단한 기쁨이자 사치였다.

한국인에게 쌀은 늘 부족했다. 해방 후에도 굶주린 이들이 넘쳤다. 그 허기의 세월을 단박에 돌려놓은 '기적의 벼씨'가 있었다. 바로 통일벼다.

남북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름인데, 통일벼는 '배고픔으로부터의 해방'이란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을 180도 돌려놓은 메가톤급 트리거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한복판에도 통일벼가 있었다.

71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쌀 신품종 IR667(통일벼) 품평회가 열렸다. 박정희 대통령, 각부 장관 등 40여 명이 모였다. 박 대통령은 밥 색깔은 '좋다', 차진 정도는 '보통이다', 밥맛은 '좋다'에 'O'표를 했다. 무기명 조사였으나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다. 동석한 각료들도 "문제가 없다"고 거들었다. 밥맛이 좋지 않아 소비자들이 거의 찾지 않았던 통일벼가 70년대 녹색혁명을 일으킨 주역으로 떠오른 결정적 순간이었다. 그보다 한 달 전, 김학렬 부총리(경제기획원 장관)가 "누가 이 밥더러 밥맛이 없다고 하느냐. 배부른 사람들이구먼!"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허문회 교수와 김인환 청장의 노력

통일벼 개발은 당대의 절박한 과제였다. 만성적인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정적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964년 중앙정보부가 이집트에서 몰래 들여온 '희농(熙農) 1호'가 식량난 해결사로 주목받았으나 우리 풍토와 맞지 않아 완벽한 실패로 끝난 직후였다.

통일벼는 민(民)·관(官)·학(學) 세 박자가 어울린 결정체였다. 앞에서 이끈 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라면, 이를 뒷받침한 건 학계와 일선 공무원의 헌신이었다. 특히 두 명의 파이오니어가 있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허문회(1927~2010) 서울대 농대 교수다. IR667이란 한국 현대농업의 최고 성과를 일궜다.

IR667에서 영어 IR은 1960년 미국이 필리핀에 세운 비영리기관 국제미작연구소(IRRI)의 앞글자를, 숫자 667은

667번째 교배를 통해 얻은 벼를 가리킨다. 64년부터 IRRI에서 만 2년간 연구한 이 교수는 IR92에서 시작해 IR1300까지 총 1209번의 조합을 만들어냈다(이완주의 『실록 통일벼』). 목표는 단 하나, 한국인의 배를 채워줄 다수확 품종 개발이었다. 그중의 하나가 통일벼 IR667이다. 1209번의 도전이 영근 결실이었다. 이후 IR667을 개량한 '유신' 등 후속 품종이 잇따랐다.

통일벼의 탄생은 눈물과 피땀의 이 중추였다. 한국에선 벼를 1년에 한 번 밖에 심을 수 없기에 삼모작이 가능한 필리핀까지 신품종 벼씨를 비행기에 실어날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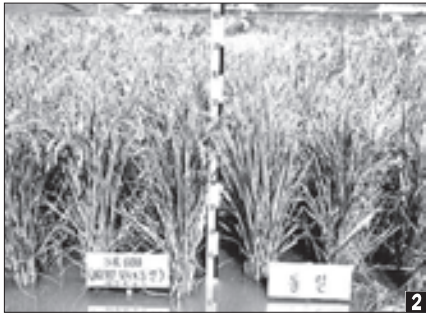
이른바 왕복 선발(Shuttle breeding)이다. 더욱 획기적인 성과는 불임 판정이 내려진, 즉 결실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인디카(동남아 일대 쌀) 계통과 자포니카(동북아 일대 쌀) 계통의 접목에 성공해 품질과 수확량 모두 우수한 전대미문의 품종을 선보였다는 점이다. 그전까지 한국의 쌀은 자포니카 계통 일색이었다.

인디카 계통은 자포니카보다 미질(米質)이 떨어지는 대신 키가 작아 쉽게 쓰러지지 않고 이삭에 낱알이 많이 열리는 장점이 있다.

허 교수는 통일벼 모판을 마련했다면 김인환(1910~89) 농촌진흥청장은 모내기를 주도했다. 역대 최장수(12년) 농촌진흥청장을 지낸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 아래 통일벼 신화의 현장을 지켰다. 71년 국내에 처음 소개된 IR667은 이후 기후·풍토·질병 등의 난제를 이겨내며 쌀 자급자족 100%라는 지상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정부는 통일벼를 시장가격보다 높게 수매하고, 전국에 농촌지도원을 파견하며 통일벼 보급에 총력을 펼쳤다.

통일벼의 성취는 놀랍다. 72년 10아르(1000㎡)당 일반벼 수확량은 321kg인데 비해 통일벼는 386kg에 달했다. 이듬해에는 481kg으로 경종 뛰었다. 통일벼 재배가 늘면서 전국 쌀 수확량도 75년 4.5%, 76년 11.9%, 77년 15.2%씩 급증했다. 74년 품의 3000만 석을 넘어선 지 3년 만인 77년 4000만 석을 돌파했다. 그해 전국 평균 수확량도 10아르당 494kg으로, 일본의 종전 세계기록 447kg을 경신했다. 정부는 76년 쌀 자급을 공식 선언했고, 77년에는 14년 만에 쌀막걸리 제조를 허용했다. 이른바 단군 이래 처음으로 보릿고개의 공포에서 벗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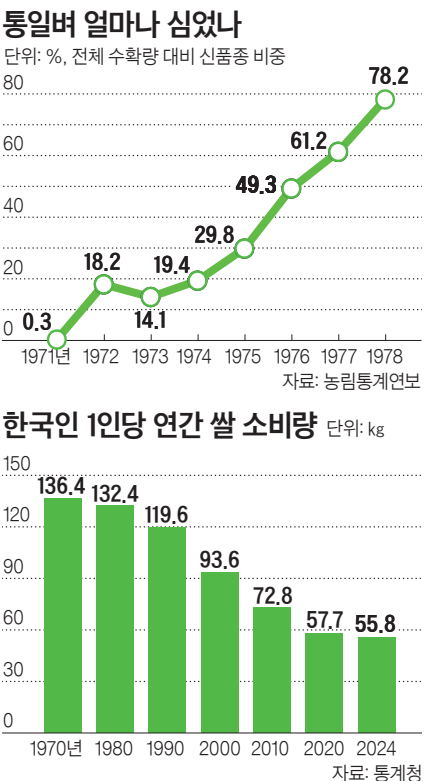
통일벼의 성과는 농업에 그치지 않는다. 70~80년대 산업화를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했다. 한국 현대사를 가



만성적 식량난 해결한 일대 사건 70년대 눈부신 경제성장 떠받쳐

박정희 의지와 학계의 헌신 주효 필리핀까지 오가며 신품종 개발

쌀 소비 줄어들며 급속하게 퇴장 "온난화에 강한 쌀" 최근 다시 주목



로지르는 키워드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다. 20세기 후반 한국호(號)를 움직인 연료를 공급했다. 일단 배가 든든해야 다른 일도 할 수 있지 않은가. 통일벼는 배고픔 해소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등공신이 됐다.

김태호 전북대 교수는 70년대의 '기술시스템'을 주목했다. 통일벼 증산체제는 행정·기술·사회적 요소의 종합이라는 뜻에서다. 그는 "정부 지원으로 농민들이 근대적 영농기법을 도입했고, 한국 농업 전체도 경제개발의 이륙(take-off) 단계에 견줄 만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평가했다(『근현대 한국 쌀의 사회사』).

이주량 과학기술정책 연구원(STEPI) 연구위원의 해석은 더욱 적극적이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제조업 신화의 뒷면에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농공 병진정책이 있었다"며 "80년대 중반까지는 농업의 고용창출률이 공업보다 높았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농업의 압축성장이 먼저 이루어졌기에 제조업의 압축성장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경제 이야기』).

오르막이 가파르면 내리막도 급하다. 통일벼 전성시대는 급속하게 저물었다. 녹색혁명이란 엄청난 성취에도 80년대 이후 통일벼에 대한 수요가 급락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식탁의 서구화가 진행되면서도 쌀 소비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밥맛 좋은 쌀, 즉 쌀의

■ 1970년 쌀 자급 달성을 위한 통일벼 집단 재배 현장. 당시 정부는 전국에 농촌지도사를 파견하며 통일벼 경작을 격려했다. 수확량이 월등한 농가에는 상금도 주었다. ■ 한국인을 보릿고개에서 해방시켜 준 기적의 벼씨 통일벼. ■ 1974년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 열린 쌀 3000만 석 돌파 축하 행사. [사진 농촌진흥청·중앙포토]

고급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신품종 연구도 통일벼 대신 '고품질 다수성' 자포니카 계열로 빠르게 이동했다. 당국의 수매량도 해마다 쪼그라들며 90년대에 들면서 시장에서 사라졌다.

"통일벼는 포니, 요즘 쌀은 제네시스"

하지만 통일벼의 유산은 막대하다. 70년대 '반짝스타'가 아닌 2000년대에도 통하는 '영원한 전설'쯤 된다. 통일벼에서 습득한 신품종 기술은 이후 계속 발전하며 21세기 한국 농업의 근간을 형성했다.

이주량 연구위원은 "통일벼가 포니 자동차, 64K D램이라면 지금 눈에 심은 벼는 제네시스, 6세대 HBM(고대역 폭메모리)"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70년대 통일벼 녹색혁명은 80년대 백색혁명(비닐온실 원예농법)으로 이어졌다. 농업의 안정적 성장으로 다른 산업의 약진도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삼모작 국가가면서도 농업 선진화에 실패하면서 산업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필리핀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쌀 걱정을 지워버린 요즘이지만 신품종 개발은 끊이지 않는다. 당면한 기후온난화가 가장 큰 변수다. 농촌진흥청 박현수 연구관은 "한반도의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에는 고온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통일벼 개발에 사용했던 인디카 품종에도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쌀은 최근 때아닌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 한 가마가 4년 만에 22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일본도 쌀생산 감축정책에 따른 쌀값 폭등을 겪기도 했다.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농업정책의 기본을 돌아보자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그 중심에 쌀이 있다. 국가경제의 주축이 제조·서비스업으로 옮겨간 지 오래지만 쌀, 나아가 농업경쟁력 확보 또한 결코 방기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022년 현재 한국의 식량안보지수(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는 총 113개국 중 39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박정호 기자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시 설

집권여당 독주의 전위부대로 전략한 국회 법사위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막말을 쏟아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의원들과 함께 밀어붙인 데 따른 후폭풍이다.

추 위원장은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건을 야당 반발을 묵살하고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 5월에도 청문회를 추진했지만, 증인으로 부른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모두 불출석해 무산됐다. 이번에는 집권여당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버르고 있다. 불출석 팬 탄핵까지 거론한다.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위원장 독단으로 대법원장 청문회 상정 의결
여야 협의의 장인 법사위가 싸움판으로 변질

사법부 독립에 대한 위협 못지않게 걱정스러운 대목은 국회 법사위의 퇴행이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모든 법안이 거쳐 가는 관문으로,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동시에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한 법안을 다시 한번 협의 테이블에 올리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2004년 17대 국회 이후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이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2020년 법사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신사협정이 깨졌다. 거센 반발에 2022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겼으나, 22대 국회에서 다시

민주당이 차지했다. 다수당의 입법 전횡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통령의 협치 약속이 무색하게 법사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추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과 야당 사이에서 연일 고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배우자가 현직 법원장인 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려는 국민의힘에도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야당의 간사 선임을 극한 충돌을 불사하면서 초유의 투표 부결로 가로막은 여당 책임이 더 크다.

법사위 회의장에선 그제도 “이렇게 하시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도움이 되나”(추 위원장), “(추미애의 추씨가) ‘가을 추’가 아니라 ‘추할 추’자 가 붙는 법사위가 된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는 유치한 말싸움이 벌어졌다. ‘상임위 중 상임위’라는 법사위가 입법부의 격을 추락시키는 장면이었다.

국회 협치를 위해 야당에 양보했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모범적으로 여야 협의를 이끌 의무가 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처럼 논란이 큰 사안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의 태도로 인해 입법 균형을 위한 브레이크 구실을 해야 할 법사위가 오히려 입법 독주의 가속 페달로 변질해 버렸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협치의 장으로 운영할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는 편이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전문직 비자 통제, 한국 인재 확보의 기회로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최대 100배 인상하면서 글로벌 인재·산업 지형에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매년 8만5000개가 발급되는 H1-B 전문직 비자의 70% 이상을 차지해 온 인도에는 즉각 비상이 걸렸다. 신규 발급분에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 외국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비자 발급이나 갱신이 언제 불안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을 떠나는 전문 인력을 붙잡으려는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참에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H1-B 10만 달러 비자 정책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의 리쇼어링(공장 본국 회귀)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반대로 전문 인력이 미국을 빠져나가면 공장까지 해외로 같이 나가는 오프쇼어링이 다시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중국·캐나다 등에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 계획’을 통해 미국 유학과 인재를 대거 영입했고, 최근 인공지능(AI) 혁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갖고 있다.

인재 전쟁은 한국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기업과 대학에서 일하고 연구할 첨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번 비자 파동이 불거지자 서울대 등 국내 대학 교수들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제자들이 귀국해

국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1970년대 ‘과학입국’ 시절, 재미 과학자를 영입해 기술 자립의 발판을 깔았던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재 확보 현실은 녹록지 않다. KAIST 최연소 임용 기록을 세운 송익호 전기·전자공학부 명예교수가 최근 중국 청두 전자과학기술대에 부임한 사실은 큰 충격을 안겼다. 28세부터 37년간 연구를 이어온 석학이지만 정년 이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없어 결국 중국행을 택했다.

지난해에도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 이영희 성균관대 석좌교수, 홍순형 KAIST 명예교수, 김수봉 전 서울대 교수 등 다수의 석학이 비슷한 이유로 중국으로 향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정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최근 5년 내 해외 연구 기관으로부터 수석연구 연봉과 함께 영입 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82.9%는 중국 측 제안이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인재 관리 전략의 부재를 드러낸다. 단순히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숙련된 전문가를 방치해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인재뿐 아니라 국가 전략자산인 기술도 유출된다. 정부는 젊은 해외 인재 유치는 물론 퇴직 전문가의 해외 유출을 막는 국가 차원의 인재 확보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첨단 인재가 곧 국력의 시대다.

대통령 지키는 험란한 기행



정치 때문에 종종 실소하게 되는데, 이번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덕분이다. 사실상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난 서영교 의원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두둔하는 논리가 신박했다. “국회에서 같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서 의원이 가장 똑똑하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똑똑한지 모르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건 한 번에 반박 가능하다. 서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전두환·내북·팬티 예산을 짰다고하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공격한 일이 있다. 누군가의 발언을 재탕 과장한 거였는데 사실과 달랐다. 예산을 수백억원 삭감한 게 아니라 원가 하락에 따른 절감분 수십억원이 생겼다. 서 의원은 그러나 “물가가 다 올랐는데 왜 그것만 내려갔느냐”고 했다. 그는 최근 별건에서도 논리적으로 밀리지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구인지 누가 모르겠는가.

이들 의원이 유난하지만, 이들만 유난한 건 아니다. 당 지도부도,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인다. 왜 이럴까. 이들의 험란한 기행을 농축하면 한 가지 사실이 추출된다.

바로 ‘대통령 지키기’다. 마블 유니버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605종의 미래를 보듯,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닥칠지 모를 모든 사법 리스크를 막겠다는 태세다.

우선 널리 알려진 ‘검찰 개혁’이다. 그간 검찰에 대한 ‘응징’이지만 동시에 장차 있을지 모를 재판에서 검찰의 대응을 제한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다. 수사 검사는 한직으로 몰았고, 공소를 담당할 부처의 힘을 뺐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도덕성이 흐트러진 이들의 말을 앞세워 소 취하도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한다.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인데, 술·연어로 가리고 있다.

대통령에게 적용된 죄목(배임죄)도 없애려고 한다. 개선이 필요했는데 그걸 막아온 게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없애자고 하니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을 게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버려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한동훈)이란 얘기가 나온다. 배임죄 폐지가 만일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한다면 그런 의도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지된 마당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압박 조치들도, 대법관 증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며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임명하도록 한 법안은 너무나도 노골적이다. 판결에서 임명권자가 보이는 현 경향성을 감안하면 퇴임 대통령의 그림자는 꽤 오래 드리울 것이다.

사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관련 장치를 해두었다. 정보의 교차점에 자신의 변호인 출신들을 기용했다. 대통령실 민정·공직기강·법무비서관에다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등이 그들이다. 오히려 중의 요로다. 보상이라고들 말하는데 대비(對備)일 수도 있다.

이 정도로도 될 듯한데, 여권은 5년 후에도 (검사가 설명 있더라도) 이 대통령

‘검찰 개혁’부터 대법원장 압박에다 배임죄 폐지… 무리한 조치 쏟아져 단군 이래 최대 권력, 과거에만 쓰나

에 대한 공소 유지를 어렵게 만들거나 범죄를 없애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판단하게 하려 한다. 다들 ‘헌정 사상 초유’란 꼬리표가 달린 무리한 조치들이다.

민주당은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 유권자의 인적 구조나 ‘민주당 도우미’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오랫동안 원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국회 권력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데 자당 대통령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나. 더군다나 지금은 단군 이래 최대 행정·입법권력이다. 왜 유난한가.

진중권 교수의 말을 변용하면 우리의 상상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여권은 대중의 상상을 과거로 데려가 잘못을 부정하고 은폐하고 변명하는 노력에 남비하게 하고 있다. 그 집요함의 반의반만이라도 오늘에, 미래에 써달라. 진심이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6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국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전담제작·배부사 미국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게조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미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민권

32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인터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 항공권

유심칩 판매
채용 공고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SAHA AIRLINES
QINGHAI AIR
AIR CHINA
AIR CANADA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한국유심 \$50 유럽유심 \$50 eSIM 판매 시작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동부투어

월출발
미동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래즈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대형버스 확정 : 9월 29일

월출발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음식)
2박 3일 \$650
대형버스 확정 : 9월 29일, 10월 6일

월출발
뉴욕&천섬&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1박 2일 \$399
대형버스 출발 가능: 10월 9일(목)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서부투어

일,월출발
미서부 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월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월출발**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월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월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월출발**
마운트 러시모어 3박 4일 \$109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 5박 6일 \$1300+항공 **월출발** **2명이상 출발가능**

성국
노아
+아미쉬마켓 당일 **\$199**
9/30, 10/16, 10/29, 11/13, 12/4

Wonderful TOUR
2025-26 Yearly Schedule

2025	
09/30~10/13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30~10/06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5~10/13	크로아티아 발칸 8박 9일 \$3590+항공
10/07~10/17	스페인&포르투갈 대강양박 10박 11일 \$33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4~10/24	고품격 고국일주 4차 대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20~10/28	튀르키예 일주 8박 9일 \$1990+항공
10/21~10/31	고품격 고국일주 5차 대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0/28~11/07	고품격 고국일주 6차 대강양박 10박 11일 \$2990+항공
11/21~12/02	이집트 두바이 11박 12일 \$3899+항공
11/23~11/27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490+항공
12/23~12/30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7박 8일 \$2490+항공
2026	
01/21~02/02	신비의 인도 12박 13일 \$3790+항공

워싱턴 지역 대표 언론 워싱턴 중앙일보의 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탑여행사에서 올 가을
여러분을 대형버스로 모십니다

대형버스
출발확정



모호크
허드슨 크루즈
하늘속 호수 모호크 산장호수의 단풍 절경과 특식으로
힐링하신 후, 시원하고 상쾌한 뉴욕의 비경을
가슴에 안고 허드슨 크루즈까지
1박 2일 | \$650 (모두 포함)
출발: 10월 21일(화)

대형버스
출발확정



스모키 마운틴
덱시&스탬피드쇼, 루비 폭포, 잃어버린 도시,락시티,
스모키 마운틴까지!
남부의 절경을 단풍과 함께 하는 특선
3박 4일 | \$1090 (모두 포함)
출발: 10월 28일(화)

대형버스 출발

뉴욕 나이아가라 2박3일
9월 29일, 10월 6일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9월 29일

지난해 조기 마감된 인기 일정! 늦기 전에 친구분들과 서둘러 예약하세요

**컴버랜드 단풍기차**
당일관광 | \$179
출발: 10/18(토), 30(목), 11/1(토)
대형버스 확정: 10/22(수), 25(토), 27(월)

2026년 여행 미리 계획하세요			
01/27~02/11	페루&우유니사막&파타고니아	15박 16일	\$9990+항공
02/01~02/11	호주&뉴질랜드	10박 11일	\$3190+항공
02/03~02/07	코스타리카	4박 5일	\$1990(항공포함)
02/07~02/15	바하마 크루즈(뉴저지 출발)	8박 9일	\$1599(인사이드), \$1899(가라진 발코니)
02/19~03/06	아프리카&두바이	15박 16일	\$12500+항공
02/25~03/02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2/26~03/07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3590+항공
03/16~03/28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 13일	\$5490+항공
03/16~03/23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 8일	\$3190+항공
03/22~03/28	페루 일주	6박 7일	\$2990+항공
04/14~04/2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 11일	\$2990+항공
04/22~05/02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4/29~05/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4/29~05/05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05/04~05/12	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3590+항공
05/05~05/15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5/11~05/21	고품격 고국일주 2차	10박 11일	\$2990+항공
05/12~05/22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05/19~05/29	서유럽 3개국	10박 11일	\$3590+항공
05/22~05/25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6/09~06/17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 9일	\$4590+항공
06/10~06/20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6/16~06/26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한)	10박 11일	\$2990+항공
06/17~06/28	영국일주	11박 12일	\$5890+항공
06/20~07/03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 14일	\$5990+항공
06/23~07/03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6/30~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7/01~0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7/07~07/17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7/14~07/22	아이슬란드 일주	8박 9일	\$6890+항공
08/01~08/14	북유럽 4개국+발틱 3국	13박 14일	\$5990+항공
08/04~08/14	북유럽 4개국	10박 11일	\$4990+항공
08/07~08/12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1690+항공
08/13~08/19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09/04~09/07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09/08~09/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09/15~09/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 11일	\$2990+항공
09/23~10/03	그리스&튀르키예	10박 11일	\$2990+항공
09/29~10/12	동유럽&발칸 크로아티아	13박 14일	\$4590+항공
09/29~10/05	정통 동유럽	6박 7일	\$2790+항공
10/01~10/14	독일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10/04~10/12	발칸 크로아티아	8박 9일	\$3590+항공
10/06~10/16	스페인&포르투갈	10박 11일	\$3390+항공
10/08~10/18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590+항공
10/13~10/23	고품격 고국일주 5차	10박 11일	\$2990+항공
10/20~10/30	고품격 고국일주 6차	10박 11일	\$2990+항공
10/15~10/28	프랑스 일주	13박 14일	\$56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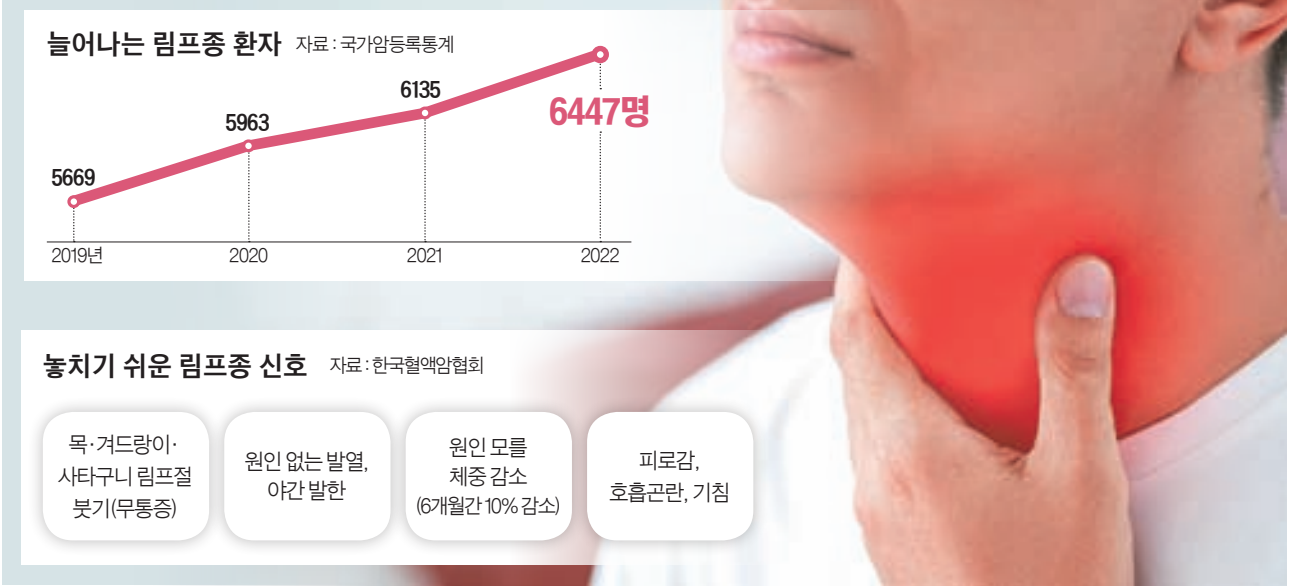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목·겨드랑이 림프절 비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림프종, 조기 진단이 관건
면역계 림프구에 발생하는 암
가장 흔한 신호는 림프절 비대
잘 때 땀 흥건, 계속 열 나도 의심
진행 빠르 만큼 즉시 병원 방문을



림프종은 면역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구에서 암이 발생한 질환으로 백혈병·다발골수종과 더불어 혈액암의 한 종류로 설명된다. 혈액암이라고 하면 흔히 백혈병을 떠올리지만 실제 림프종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설고 대중의 관심은 부족한 편이다. ‘세계 림프종 인식의 날’(9월 15일)은 바로 그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만들어졌다.

유방암 수술을 하는 의사로 진료하다 보면 유방내 혹이나 암이 없는 데도 겨드랑 림프절만 커진 환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안 아파서 암이 아닐 줄 알았다” “밤에 열이 나서 갠년기인가 했다” “체중이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가인가 했다”라고 했는데 조직검사 결과 림프종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다.

소아·청년 때도 드물지 않게 발생
림프종은 크게 호지킨 림프종(5~10%)과 비호지킨 림프종(90%)으로 나뉘는데 비호지킨 림프종은 우리나라 2022년 발생자 수가 6000명을 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50세 이후 중년에서 많이 생기지만 청년이나 소아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특히 호발암(好發癌·발생빈도가 높은 암) 발생이 적은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림프종의 비중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림프구가 주로 림프절에 집중 분포하면서도 전신을 순환하기 때문에 림프종은 림프절에

서 자주 발생하지만 그 외 간·위장관·피부·신경·골수 등 다양한 조직을 침범할 수 있다.

림프종의 가장 흔한 신호는 통증 없는 림프절 비대이다.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멍울처럼 잡하는데 다양한 감염증으로 인한 동반증상으로 생각하거나 아프지 않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다.

만저지는 림프절 비대 이외에도 림프종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뭐가 있을까. ①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되는 열 ②자는 동안 속옷이 젖을 정도의 야간 땀 ③지속적인 체중 감소 등이 알려져 있다. 여러 장기를 침범한 경우 침범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며 목이나 신체 일부분에 종괴 형성을 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림프종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림프절 또는 종괴부위에 대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암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총생검 또는 림프절 절제술 등으로 진단하며 기본적인 염색과 더불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여 림프종의 종류를 구분하

고 분자유전학적 검사를 통하여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진단 이후 CT, PET-CT 같은 영상검사로 몸속에 퍼진 정도(병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골수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암의 크기나 전이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다른 고형암과 다르게 림프종의 병기는 침범 범위에 따라 1기에서 4기까지 나뉜다.

비호지킨 림프종, 5년 생존율 65%
림프종은 진행이 빠르고 강도 높은 항암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예전에는 무서운 병으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해왔다. 치료는 림프종의 종류, 악성도나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림프종은 전신적 질환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로써 수술이나 방사선조사만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항암치료=가장 기본적인 치료로, 호지킨 림프종과 비호지킨 림프종에 각각 표준 항암제가 정해져 있다.

◆표적치료·면역치료=리툽시맙 같은 항체 치료제가 대표적이며, 각종 표적에 대한 항체, 면역항암제나 CAR-T 세포 치료처럼 최신 치료법도 사용되고 있다.

◆조혈모세포 이식=재발이나 고위험 환자에서 시행하는 강도 높은 치료이다.

악성도가 낮은 저등급 림프종(소포성 림프종, 말트림프종)의 경우 질병 악화 속도가 느리며 관련 증상이 없을 시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한다. 악성도가 높은 공격형 림프종(미만성 큰 B세포림프종, 말초 T세포 림프종)의 경우 적극적인 항암 치료가 필요하며 급성백혈병과 같은 경과를 보이는 악성도가 매우 높은 일부 타입(버킷림프종, 림프모구림프종)도 있어 고용량 항암 치료가 이루어진다. 림프종의 아형에 따라 다양한 치료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의 진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자.

많은 림프종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호지킨 림프종은 치료 성적이 특히 좋아, 10명 중 8~9명은 5년 이상 생존한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아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절히 치료받으면 장기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5년 생존율이 65%에 이른다.

정소연 국립암센터 유방암외과 전문의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Ebenezer Matching
스페셜 매칭
초혼, 재혼, 시니어
에벤에셀과 함께 평생의 인연을 만나보세요!
(917) 359-1578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최지호
가정의학/노인의학 전문의

—1995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2006년 플로리다 대학교 가정의학 전문의 수료
—2013년 조지워싱턴 대학교 노인학 펠로우 수료

전화/문자/사진/비디오
240-232-5989
Fax: 703-662-6165
frontdesk@immediatehousecalls.com
immediatehousecalls.com

가정의학 / 노인의학 클리닉
24/7 전화 진료

전문 노인의학 / 일반 진료

- 처방전 관리(당뇨, 고혈압, 고지혈, 갑상선, 위장약, 기억력/치매, Pain Patches(Lidoderm, ZTlido, Flector, Pennsaid))
- 통증치료(체외충격파 / 치료 초음파)
- 치매(기억력) / 우울증 검사
- 상·하 기도 감염, 요로 감염
- Xray / CT / MRI 리퍼럴
- 종합 피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건강백세+건강 지킴이 주사 (수액/정맥주사)

- 기력회복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 머리카락 & 피부 건강
- 뇌 건강(기억력, 집중력)
- 관절통 완화 & 염증 개선
- 심혈관
- 신경 안정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MD만 가능)

- 한방 치료
- 치료 마사지

Ace Acupuncture
571-438-4644
Healing Hands Massage
703-314-9461

*** 메디케어 파트 B 받습니다. (ANTHEM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VA 4216 Evergreen Lane, ste 125
Annandale, VA 22003-3256

진료시간 월 ~ 수, 9am ~ 3pm
토, 9am ~ noon

MD 16051 Comprint Circle,
Gaithersburg, MD 20877-1320

진료시간 목 ~ 금, 9am ~ 3pm
*메릴랜드에서만 치료 마사지와 한방 치료가 가능합니다.

Health&·대한류마티스학회 공동 선정 차훈석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삶의 질 떨어뜨리는 류머티즘 관절염, 조기 진단이 중요”

‘암만큼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류머티즘 관절염을 가리키는 말이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오작동해 스스로를 공격하고, 그 결과로 염증이 생겨 관절을 파괴한다. 정도가 심해지면 관절이 망가져 손발을 못 쓰고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생긴다.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차훈석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류머티즘 관절염과 싸우는 환자의 곁을 지켰다.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이어오며 국내 류머티즘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사장직을 맡아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진료 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30~50대 발병 잦고, 여성이 3배 더 많아

·류머티즘 관절염의 원인은 뭔가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소인을 보유한 사람이 특정 환경에 노출될 때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환경 요인은 흡연과 치주염 등이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병할 수 있지만 30~50대에서 잘 나타나고 남성보다 여성에게 3배 더 많이 생긴다.”

·질환 발병을 의심할 만한 신호가 있나요?
“류머티즘 관절염은 보통 손가락과 발가락 등 작은 관절에 좌우 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염증이 침범한 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손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소위 조조(早朝) 강직을 겪게 된다. 노화나 과로로 인한 증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일 땐 조조 강직이 30분 넘

진단 늦을수록 관절 손상·변형 심화
난치성 질환인데 사회적 관심 낮아
걷기 행사 등 통해 직접 알리기 나서

게 이어지고 통상 6주 이상 지속한다.”
·치료의 골든타임은 언제인가?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개 발병 3~6개월 이내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 관절 손상과 변형을 막고 장기적인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반면에 치료가 늦어지면 적극적으로 치료해도 장애를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차 교수는 진단 시기에 따라 예후가 극명하게 엇갈린 두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각각 60대 초, 30대 중반의 여성 환자다. 60대 환자는 차 교수를 만나기 전 약 20년간 비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 관절이 심하게 망가졌다. 당장의 통증을 달래려 무분별하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탓에 부작용으로 골다공증과 척추 골절까지 발생한 상태였다. 뒤늦게 전문적인 약물치료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아 통증은 줄었지만 손발 관절에 장애가 남아 지금도 주변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다.

반대로 30대 환자는 질환 발병 두 달 만에 차 교수를 찾았다. 피아니스트였던 환자는 양손과 발가락의 심한 관절통, 부종으로 연주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로 3~4개월 만에 증상이 호전돼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다. 차 교수는 “환자가 아이 갖기를 희망해 임신 중에도 복용 가능한 약제로 치료 약을 변경했다”며 “이후 성공적으로 임신하고 출산해 현재는



차훈석 삼성서울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30여 년간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에 매진했다. “선생님 덕분에 여태껏 살아 있다”는 환자의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지미연 객원기자

관절염 증상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문제는 우리나라에 환자들을 감당할 만큼의 전문가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류마티스내과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시·군도 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해 제때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비전문가에게 부적절한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앞으로도 걱정이다. 올해 류마티스내과 펠로우(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세부 과목을 수련하는 의사) 과정을 밟는 이들은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의·정 갈등과 무관하게 류마티스내과를 전공하려는 이들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시니어 의사로서 어깨가 무거울 텐데.
“병원이나 학회를 통해 내과 전공의

들에게 장래 이 분야의 필요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리려 노력하고 있다. 환자를 포함한 대중과 동료 의사들에게 류머티즘 관절염의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홍보·교육 활동도 다방면으로 지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

“지난봄에는 학회 차원에서 환우와 함께하는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공원을 걷고 질환에 대한 퀴즈, 상담 등을 진행하며 올바른 정보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환자와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거나 ‘관절 가요제’를 열기도 했다. 이런 행사를 통해 환우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 행사에 의대 학생들도 참여해 류마티스내과를 알리는 계기도 됐다.”

통증 증상 가벼워도 약 꾸준히 먹어야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류머티즘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안긴다. 그런데도 암이나 심혈관 질환보다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환자 교육 수가(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 행위의 대가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의 신설이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증상이 가벼워도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많은 환자가 통증이 줄면 치료를 중단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의료진의 설득과 교육이 중요하나 짧은 외래 진료 중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수 기자

병원 리포트 세브란스병원 천근아·김휘영, 서울대병원 김봉년 교수팀

스마트폰에 아이 음성 녹음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판별 가능해져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개발됐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반복적인 관심과 행동, 사회성과 언어 능력의 결함이 특징인 질환이다.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장애인 만큼 조기에 장애 증세를 확인하고 치료하면 언어 발달과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신경외과 김휘영 교수, 서울대병원 김봉년 교수팀은 국내 9개 병원을 찾은

18~48개월 영유아 1242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모아 AI 모델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도록 개발한 AI 모델은 ▶이름을 부르면 반응하도록 유도 ▶부모의 행동 따라 하기 ▶공놀이 ▶장난감 등을 이용한 상상 놀이 ▶도움 요청하기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월령별로 과제 수를 다르게 할당한다. 18~23개월은 4가지, 35개월까지는 5가지, 48개월까지는 6가지로 늘리는 식이다.

녹음한 아이 음성을 입력하면 부모가 앞서 작성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선

증세 심해진 후 진료 받는 경우 많아
정확도 94%로 높은 AI 모델 개발

월령별 검사 진행해 조기 발견 도와

별 검사인 M-CHAT(영유아 자폐 선별검사), SCQ(사회적 의사소통 질문지), SRS-2(사회적 반응성 척도) 점수와 함께 AI가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기존 검사를 이용하면 정확도는 70%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 타인과 상호작용했을 때의 목소리 톤, 리듬, 음성 패턴이 담긴 음성 데이터를 함께 활용

하면 다차원적인 분석이 가능해져 정확도가 높아진다.

연구팀이 개발한 AI 모델은 94% 이상의 정확도로 정상 발달 아동과 발달 위험군 자폐 아동을 우선 구분했고, 85%의 정확도로 고위험군과 실제 자폐 아동을 구별했다.

연구책임자인 천근아 교수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이후에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개발한 AI는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좀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해지고 그만큼 더 좋은 치료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휘영 교수는 “AI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검사 지표인 음성 과제를 시행하면 누구나 쉽게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의 진단 전에 부모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검사 도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달장애 디지털치료제 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npj 디지털 의학(npj Digital Medicine)’ 최신호에 실렸다.

김선영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건강 칼럼

손발저림

9세 여성환자가 손과 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환자가 말하는 "저리다"는 증상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되었다. 환자가 말하는 저리다는 증상의 대부분은 피가 통하지 않을 때 마비되는 것 같은 감각을 말하고 있었다. 또한 가끔 손발에 전기가 순간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및 발바닥이 불난 것같이 화닥 거리거나 뜨거운 이상 감각도 들어 있었다. 환자는 60대 초반 부터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저리는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고 하

였다. 환자는 특히 왼손과 왼쪽발의 손끝과 발끝에서 동시에 저리기 시작하여 최근 들어서는 저리는 감각과 동시에 콧속 찌르는 통증도 호소 하였다. 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콜레스테롤) 및 당뇨를 오랜기간 앓아 왔으며 과거 뇌졸중도 가볍게 한번 온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본 환자의 손발저림의 경우 일반에게 중풍으로 알려져 있는 뇌혈관 질환을 먼저 의심할 수 있었다. 중풍하면 흔히들 반신불수, 반신마비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야말로 매우 흔히 손발저림 증상을 초래할 수 있

는 신경계 질환 중의 하나이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의학적으로 뇌졸중이란, 뇌혈관 정확히는 뇌조직 또는 뇌 신경세포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동맥 또는 작은 소동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갑자기 막히거나 터짐으로서,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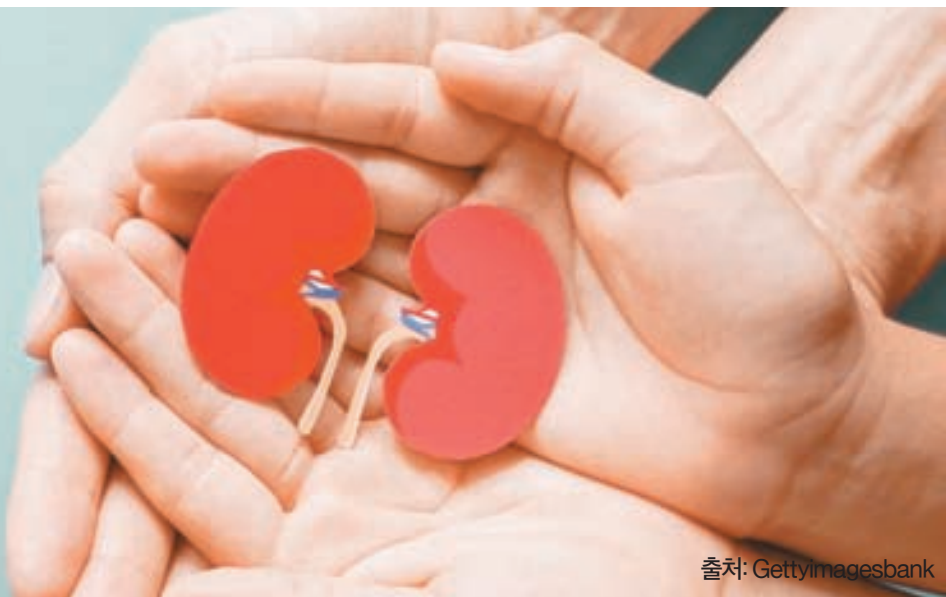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시간 동안 뇌세포나 뇌조직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여 신경세포가 죽게되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경우를 뇌경색,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경우를 뇌출혈이라 부르는데, 어떤 위치의 뇌조직이 손상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증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중의 하나가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영역이 침범 될 경우 생기는 이상 감각 증상이다. 흔히들 손발이 저리다는 증상은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대부분 '혈액 순환'이 안되어 그런다고 일반에 널리 알

려져 있는데, 이는 의학적 사실과 매우 다르다. 손발을 포함 사지가 저리는 증상의 대부분은 신경의 이상으로 나타난다. 버거씨병이나 레이노드병과 같은 소수의 특이한 혈관계의 질환을 제외하고는 손발이 저린 증상의 90%이상은 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필자를 찾아온 이 여성 환자의 경우 오른쪽 뇌의 시상이라는 부위에 뇌졸중이 와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즉각적인 신경내과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의 효과적인 조절이 가능할 수 있었다.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40대 이후 검진 때
복부 초음파 해야
신장암 조기 발견



출처: Gettyimagesbank

신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몸의 등 쪽, 갈비뼈 아래에 좌우 한 쌍으로 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이를 소변으로 만드는 기능을 담당한다.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혈관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혈액순환이 많이 이뤄진다. 몸의 수분과 전해질 농도, 혈액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신장암, 커질때까지 특별한 증상 없어
신장암은 말 그대로 신장에 생긴 악성 종양이다. 그중에서도 소변을 생성하는 세포들이 모인 신장의 실질 부분에서 발생한 신세포암을 뜻한다. 신장암은 2022년 기준 국내 암 발생 순위 10위에 해당하지만, 위험도나 발병률에 비해 일반인에게 덜 알려진 경향이 있다. 『신장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로 치료하자』(와우라이프·사진)는 신장암이란 질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치료 과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다. 2018년 초판 발간 이후 최신의 치료 흐름을 반영한 세 번째 개정판이다. 신장암이 무서운 건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다. 신장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25~30%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신장암의 3대 증상은 옆구리 통증, 혈뇨, 옆구리 혹이다. 체중이 줄고 열이 나며 야간에 땀이 나는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신장암이 폐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 신장암이 다른 장기로 퍼지면 전이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뼈로 퍼지면 뼈 통증, 뇌로 퍼지면 두통, 폐로 퍼지면 기침과 각혈이 발생하는 식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건강검진 목적이나 소화기계 질병을 알아내기 위해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

발병률 10위, 위험성 덜 알려져
진단 당시 약 30%는 전이 상태
조기 발견 종양 치료 예후 좋아



우가 많다. 무증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신장암일수록 초기인 사례가 많아 병의 예후가 좋은 편이다. 책의 저자인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변석수 교수는 “신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40대 이후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복부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신장암의 치료법은 크게 ▶영상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종양의 크기 변화나 이상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관찰 ▶종양을 포함해 신장을 완전히 절제하는 근치적 절제술 ▶종양과 그 주변의 정상 조직을 조금만 떼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부분 절제술 ▶방사선·고주파 치료, 냉동요법, 항암제 등의 비수술적인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즘엔 작은 신장 종양, 특히 4cm 이하의 종양에 대해선 부분 절제술이 표준치료로 자리 잡았다. 변 교수는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부분 절제술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특히 로봇 보조 부분 신장 절제술에서 국내 최다 수

술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변 교수는 “신장암 병기와 종양의 위치 등에 따라 수술하는 의사마다 시행하는 수술법에 차이가 있다”며 “다만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초기 암의 경우 상처가 크고 회복 기간이 긴 개복술보다 복강경이나 로봇 보조 수술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4cm 이하 작은 암은 부분 절제술 권고** 다른 장기로 암이 퍼진 전이성 신장암은 수명 연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항암제를 사용한다. 최근 이 분야에서 오피디보-키트루다·여보이 등으로 대표되는 면역항암제가 중요한 치료법으로 떠올랐다. 이 약들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더 잘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부 환자의 경우 이 면역 치료가 큰 효과를 보여 장기 생존이나 완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메트 앞 7700 건물 6층**

부부 7쌍 중 1쌍 “아이 갖기 어려워” … 산전 검사로 조기 대응해야

상 임신을 막는 숨은 요인들 많은 부부가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한다. ‘곧 좋은 소식이 오겠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불안감이 몰려온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매달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에 지쳐간다. 난임은 더 이상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7쌍 중 한 쌍이 난임을 겪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신을 꿈꾸지만 쉽지 않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 잘못된 속설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기대다가는 치료 시기를 놓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남성은 난임 문제를 마주하는 데 주저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임신을 위한 책임 있는 준비 과정의 일부다. 늘어나는 난임의 현실을 짚고 이를 둘러싼 오해와 극복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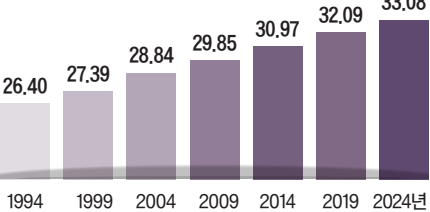
하지수·이민영 기자 ha.jisu@joongang.co.kr

난임 시술 3년 새 37%나 늘어나
균형 잡힌 식사·운동으로 체중 관리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 숙면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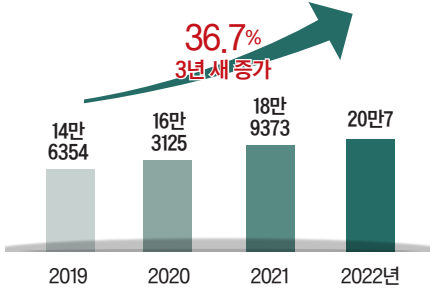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했음에도 1년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다. 여성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면 그 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난임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은 꾸준히 증가세다. 국내 난임 시술 건수만 봐도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천으로 3년 새 36.7%나 늘었다.

난임 환자가 증가한 주된 원인은 늦어진 결혼과 고령 출산이다. 실제 한국 여성의 첫째 아이 출산 연령은 1994년 평균 26세에서 2024년 33세로 훌쩍 뛰었다. 나이가 들수록 난소 기능이 저하되며 만 35세를 기점으로 가임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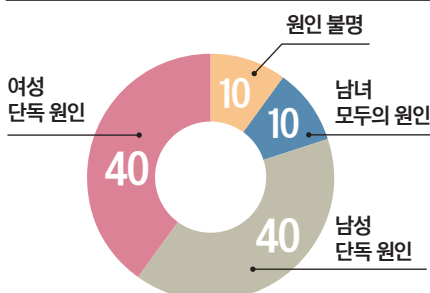
높아지는 평균 초산 연령 단위:세



난임 시술 건수 얼마나 늘었나 단위:천



난임의 성별 원인 단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렇다고 여성에게만 난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김용진 교수는 “난임의 원인을 따지면 여성 단독 원인 40%, 남성 단독 원인 40%, 남녀 모두의 원인 10%, 원인 불명 10%”라고 설명했다.

남성 난임의 주된 이유는 ▶정자 이상 ▶정자 이동 통로 장애 ▶성 기능 장애 등이다. 최근에는 ‘몸짱’ 욕심에 남성호르몬 주사를 맞았다가 부정자궁을 겪는 남성도 더러 있다. 외부에서 남성호르몬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호르몬 생성 능력이 나빠져 정자 수가 감소할 수 있어서다.

난임의 위험을 줄이고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려면 산전 검사가 우선이다.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이뤄진 산전 검사를 통해 임신에 필요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난임의 숨은 요인을 찾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때 확인하는 항목은 질한 이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골반염을 앓았다면 나팔관이 막혀 있는 지를, 난소 수술 이력이 있다면 난소 기능의 저하 여부를 더 면밀히 살펴보는 식이다.

배란 2일 전부터 배란일 임신 확률 높아
기본적인 준비를 마쳤다면 그다음 해야 할 일은 정확한 배란일 확인이다. 생리가 규칙적이라면 보통 다음 생리 시작 14일 전이 배란일이다.

마리아병원 산부인과 정미나 과장은 “생리 주기가 일정하다면 생리 주기 애플리케이션의 가임 기간 기능을 활용해도 좋다”며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병원에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일반적인 생리 주기는 28일. 이 경우 생리 시작일을 1일로 볼 때 11일이나 12일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가장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는 배란 2일 전부터 배란일까지다. 이 시기에는 가능한 한 매일 부부 관계를 갖는 게 도움 된다. 미즈메디병원 아이드림센터 이유진 진료과장은 “일주일 이상 금욕을 한 것보다 주기적으로 부부 관계를 할 때 정액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가임기가 아닌 시기에도 2~3일 간격으로 부부 관계를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임신을 둘러싼 속설, 사실일까?

❌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난임 된다

피임약을 장기간 먹었다고 가임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피임약은 배란을 억제해 임신 가능성을 낮추며 복용을 중단하면 가임력은 다시 회복된다.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피임약 복용을 멈추고 1년 이내 임신한 비율은 약 80%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관계 후 물구나무를 서면 임신이 잘 된다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관계 직후 다리나 엉덩이를 위로 올리거나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다. 관계 후 곧바로 샤워하면 임신에 방해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자세나 행동보다는 배란일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부부 관계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

ⓘ 과체중이면 임신이 어려워진다

나이 못지않게 체중도 임신에 영향을 미친다. 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질량 지수(BMI 23kg/m²) 이상의 과체중 여성은 그 이하인 여성보다 난임 위험도가 16배 높게 조사됐다. BMI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통상 그 값이 18.5~22.9 범주면 정상으로 본다. 과체중일 경우 임신 후 당뇨 등 합병증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 무정자증이면 임신이 불가능하다

꼭 그렇지만도 않다. 무정자증은 정액 검사에서 정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폐쇄성과 비폐쇄성으로 나뉜다. 폐쇄성은 고환에서 정상적으로 정자가 생성되나 부고환이나 정관 등 이동 경로가 막혀 정자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에 비폐쇄성이라면 호르몬 이상 등으로 고환에서 정자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는다. 마리아병원 임강태 남성난임센터장은 “폐쇄성일 땐 외과적 수술을 통해 정자의 이동 통로를 복구하거나 정자를 직접 채취하는 식으로 임신을 시도할 수 있다”며 “비폐쇄성인 경우 호르몬 치료 등을 통해 정자를 채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신 막는 대표 요인들

남성	여성
정자 이상 정자의 수·모양·운동성	배란 기능 장애 다낭성 난소 증후군 등
정자 이동 통로 장애 고환·부고환·정관·사정관 문제	난관 요인 난관 수축·폐쇄
정액 이상 정액과 전립샘 이상	자궁 요인 선천성 자궁 기형, 자궁근종
성기능 장애 발기 부전, 사정 장애	난소 기능 저하 고령(40세 이상), 난소 수술력
질환 정맥류 등	복강 요인 자궁내막염, 복강 내 유착
생활습관 과도한 음주, 흡연	기타 원인 불명, 항체호르몬 이상(부족)

출처: Gettyimagesbank

가임기 아닌 때도 주기적 부부 관계 맺어야
생활습관 개선도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 가운데 특히 간과하기 쉬운 요인이 충분한 수면이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이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여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배란 주기나 난자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성 역시 수면이 부족하면 정액량과 정자 운동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자 형태 이상이나 DNA 손상 위험을 높여 수정 능력과 착상률이 낮아진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권장한다.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한 체중 관리 역시 필수적이다. 더불어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자와 난자 상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부부가 서로 지지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한다.

여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사회적 시선과 낙인이 불편할 수 있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뚜렷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5200여 건이

던 국내 남성 난임 시술 환자 수는 4년간 12배 정도 증가했다. 난임을 둘러싼 시선이 변화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정미나 과장은 “저출산 시대에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예전과 달리 요즘은 한두 달의 시도에도 임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난임 병원을 바로 찾은 만큼 다들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방문이 곧바로 치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 부담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센터빌 한인타운 중심가 교통편리한 곳에 버지니아 열린 시니어 데이케어센터 오픈 예정

가정 돌봄 센터

가정에서 돌봄이 힘든 부모님을 위해
쾌적한 환경의 고급 돌봄센터 운영!!

버지니아 한인 최초로 Assist Living (양로호텔) 완공 임박!!

버지니아 열린 홈 헬스케어 / 대표 : 김 종 훈
Mobile (703)268-0107 / Office (703)280-0910 / Fax (571)487-8751
Email: admin@vaohc.com / General Inquiries: info@vaohc.com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65세 이전 조기은퇴, 좋은 면도 있다

건강 수명은 64세까지
일찍 은퇴해야 노후 즐거
자발적, 긍정적 이유 결정
우울증 위험 낮다는 연구도

많은 이들에게 조기 은퇴는 꿈이다. 유고브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약 59%가 65세 이전에 은퇴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래도 여전히 전통적인 은퇴 연령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몇 가지 통계를 보면 생각을 다시 해볼 수도 있다.

▶건강 수명은 64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8.4세다. 그러나 이 나이까지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WHO가 발표한 미국인의 건강 수명은 63.9세다. 이 나이를 넘어서면 만성 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져 황금기를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만약 65세 은퇴를 계획한다면 이미 건강 수명의 문턱을 넘은 셈이다. 조기 은퇴하면 건강한 시기에 취미 활동이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시간 여유를 준다.

▶9만 시간 직장서 보내= 랜드연구소 출신 데이터 과학자 앤드루 네이버는 미국인 대부분이 평생 직장에서 총

9만 시간을 보낸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막대한 시간이다. 주 35시간 근무 기준으로 5년 일찍 은퇴하면 약 9100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크루즈 예약 플랫폼인 크루즈부킹에 따르면 세계 일주는 평균 120일이 걸린다. 5년 일찍 은퇴하면 세계 일주를 세 차례 떠날 시간이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통계다.

▶우울증 낮추는 자발적 조기 은퇴= 국제 보건 연구·정책 저널에 실린 연구논문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은퇴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은퇴를 결심한 배경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이유로 은퇴한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낮았지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할 때 스스로 선택해 은퇴하면 우울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너무 오래 미루면 건강 문제 등으로 비자발적 은퇴를 맞을 가능성이 커진다. 원하는 시점에 스스로 은퇴를 선택하는 것은 은퇴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은퇴 자금은 어떻게= 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59%는 조기 은퇴를 원하



65세에 은퇴하면 건강 수명으로 분류되는 64세를 넘기기 때문에 조기 은퇴하면 노후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만 실제로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40%에 불과하다. 생활비 상승과 경제적 불안정이 이런 차이를 만든다. 은퇴 자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러나 고용인복지연구소(EBRI)는 35~64세의 약 59.9%가 은퇴 후에도 돈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생활비가 저렴한 지역

이나 국가로 이주하거나 은퇴 후 예산을 더 꼼꼼하게 짤 수도 있다. 재정 전문가와 함께 현실적인 은퇴 계획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다.

안유희 객원기자

COLA, 1985년 이후 가장 많이 인상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

최근 4년간 총 20% 올랐어도
절반 “물가 못 따라가” 응답
기금 고갈 빨라지는 단점도

비영리단체 ‘시니어 시티즌스 리그’는 2026년 소셜연금 생활비 조정(COLA)이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간 평균 COLA는 4.6%에 이른다. 이는 1985년 5.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인상 폭은 지난 40년 어느 때보다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높은 인상률에도 체감은 다르다. 소셜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는데도 시니어들의 체감 인상률은 여전히 낮다. 모틀리 폴의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2024년과 2025년 COLA가 생활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COLA 산정 방식 자체가 시니어의 실제 지출 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보장국은 COLA를 산정할 때 도시 임금근로자·사무직 노동자 소비자물가지수(CPI-W)를 사용한

다. 하지만 시니어는 젊은 근로자와 달리 주거비와 의료비 비중이 높고 교통비와 교육비 지출은 적다. 전문가들은 고령자 소비자물가지수(CPI-E)가 더 적합하다고 지적한다.

CPI-E를 적용했다면 2024년 COLA는 3.2%가 아닌 4%, 2025년 COLA는 2.5%가 아닌 3%로 산정됐을 것이다.

결국 최근 몇 년간 소셜연금 인상은 시니어 체감 물가에 비해 작아 실질 구매력이 줄어든 셈이다. 또 40년 내 소셜연금을 가장 많이 올리면서 사회보장 신탁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앞당길

최근5년간COLA인상률

연도	인상률	비고
2022	5.9%	팬데믹 후 물가 급등 반영
2023	8.7%	40년 만의 최고 인상률
2024	3.2%	물가 안정세 일부 반영
2025	2.6%	최근 확정치
2026	2.7%(예상치)	시니어시티즌스리그 전망
	20.4%	2022~2025년 총인상률
	4.6%	2022~2026년 평균 인상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신탁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34년으로 2019년 전망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당시 신탁기금 이사회는 2022~2025년 COLA를 연평균 2.6%로 가정했으나 실제 인상률은 훨씬 높았

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COLA 인상 폭이 예상보다 크면 신탁기금은 2034년보다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 COLA를 많이 올리면 미래가 걱정, 적게 올리면 당장 생활이 걱정인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좌골 신경통,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불면증, 어지럼증
- 만성피로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소화장애, 순환장애
- 교통사고 후유증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한국 공진단 판매

한방에서 처방되는
명방 중에서도
 으뜸인 최고의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외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험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이름 석자만 쓴 게 아니었다, 예술이 된 방명록

영인문학관 ‘만남의 이정표-방명록전’
생신첩에 이어령 그린 김승옥 등
1958년부터 이어진 예술가들 흔적
글귀·명구 등서 작성자 개성 드러나

“고달팠던 나그네들 여기 머물다 모두 어디로들 가셨나.”

2001년, 김우중 문학평론가가 쓴 글이다. 누군가에게 적은 편지가 아니다. 당시 서울 종로구 영인문학관에 방문한 김우중 평론가가 문인시각전 전시장에 놓인 화첩에 붓으로 적은 방명록이다. 같은 화첩에 김상옥 시인(1920~2004)도 글귀를 남기고, 강성희(1922~2009)와 박현숙(1926~2020) 두 극작가는 나란히 이름을 적었다.

영인문학관은 이 화첩을 포함,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문인과 예술가 등이 남긴 방명록을 전시하는 ‘만남의 이정표-방명록’ 전(이하 방명록전)을 개최한다.

1958년부터 2025년까지 영인문학관이 소장해 온 방명록 중 고(故) 이어령 선생(1933~2022)과 관련한 방명록을 포함, 약 30개 방명록의 속지를 골라 예술가들의 교류 흔적을 전시했다.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과 직원들이 직접 검토하고 필기체를 해독해 작성자를 밝혔다.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은 “방명록은 누구의 축제에 누가 찾아와 주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누군가의 경사를 축하하는 우정의 흔적이자, 작



1 김승옥 소설가가 1989년 고 이어령 선생 생신첩에 남긴 그림. 이어령 선생을 그렸다. 2 2002년 어효선 아동문학가가 문인·화가 부채·글 그림전에 방문해서 그린 방명록. 그가 들고다니던 필기구로 색을 채웠다. 3 2001년 문인시각전에 김상옥 시인이 남긴 그림 형태의 방명록. 4 2001년 김우중 평론가의 방명록. “고달팠던 나그네들 여기 머물다 모두 어디로들 가셨나”라고 적었다. [사진 영인문학관]

가 연구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라고 표현했다.

무언가를 축하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당대 문인들에게 방명록은 단순히 이름만 남기는 자리가 아니었다. 화가와 문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그림과 글을 그려 넣고, 서예가들은 명구를 적어 간접적으로 마음을 표했다. 이렇게 화첩에 수놓아진 ‘흔적’은 시간이 지나 예술품이 됐다. 영인문학관 관계자는 “전시가 열린 후 방명록을 쓴 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전시를 보러 와서 적은 방명록이 작품이 될 줄은 몰랐다면 기뻐하셨다”고 전했다.

1층 제2전시실엔 고 이어령 선생의 아내 강인숙 관장이 소장 중인 개인 자료 12개가 전시됐다. 1958년 스케치북

에 쓰인 이어령 선생의 결혼식 방명록부터 1960년 이어령의 『지성의 오솔길』 출판기념회 방명록, 이어령 선생이 창립한 출판사 문학사상 관련 방명록, 이어령 선생의 생일에 찾아온 문인들이 쓴 생신첩도 포함됐다.

1985년 문학사상 주간직을 내려놓을 때 열린 송별연 방명록엔 최인호 소설가(1945~2013)가 “이어령 선생님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라고 남긴 문구가, 생신첩 중엔 『무진기행』의 김승옥 소설가가 그린 이어령 선생의 모습이 눈에 띈다.

1990년 열린 이어령 선생의 문화부장관 취임식에서 쓴 병풍 형태의 방명록도 있다. 누군가 “우리는 영원한 올림픽 가족”이라고 쓴 글이 시대상을 보여

준다.

이외에도 회갑연 방명록과 이화여대 국문과 교수 재직시절(1966~1989) 제자들이 쓴 방명록도 나왔다. 1960년 이어령 선생과 함께 전후문학인협회를 결성했던 오상원(1930~1985) 소설가의 『백지의 기록』 출판기념회 방명록도



영인문학관 2층 제1전시실. 이어령 선생의 개인 자료들이 전시됐다. [사진 영인문학관]

놓였다.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영인문학관에서 열린 전시를 찾아온 사람들이 쓴 방명록은 2층 제1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영인문학관 하늘처럼 높고 푸르소서”(장사의 음악인, 2002년 작성) “사람은 가도 글은 남는군요”(김치수 평론가, 2004년 작성) 등의 글귀, 난을 치거나 호랑이와 여인의 모습을 그 자리에서 그린 화가들도 있다. 방명록에선 박노수·박완서·성춘복·이청준·장사의·이해인·은희경 등 익숙한 유명인의 이름을 만날 수 있다.

이어령 선생이 사망한 2022년 2월 이후 적힌 방명록을 보면 그리움이 묻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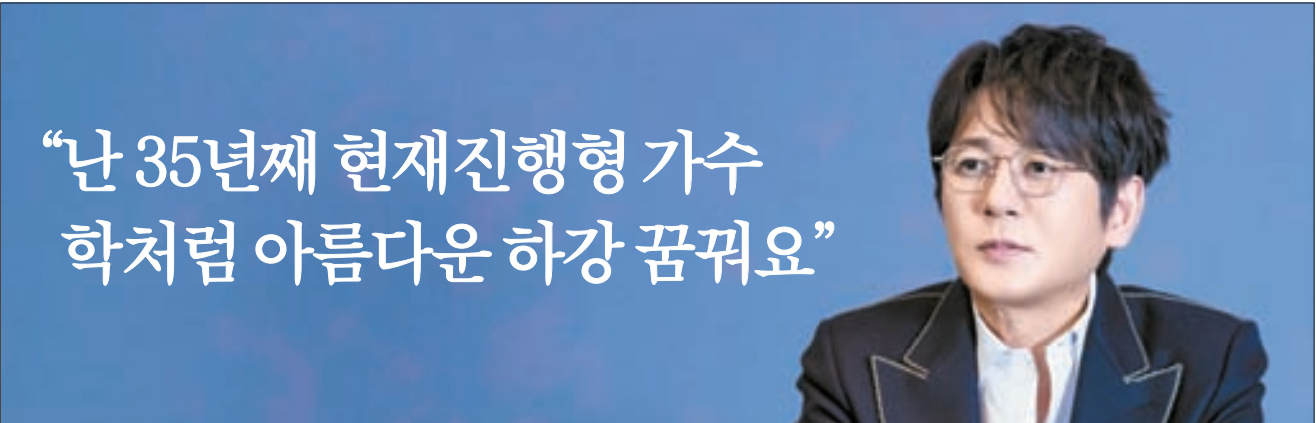
최혜리 기자

신승훈, 10년만에 정규앨범 발매

“은퇴는 안 하겠지만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만들었다. 떨어지는 낙엽에 가을 감성이 치솟던 때가 지나고, ‘청소하기 힘들겠네’하는 무더짐이 당연한 나이가 됐다. 앞으로 곡 작업을 하기 쉽지 않을 거란 생각에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정규 12집이다.”

‘발라드의 황제’ 신승훈(59)이 10년만의 정규앨범을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 22일 오후 서울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에서 개최한 정규 12집 ‘신시열리 멜로디즈’(SINCERELY MELODIES)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다.

이번 음반은 신승훈이 데뷔 35주년을 기념하는 음반이자 오랜만의 정규



타이틀곡 ‘너라는 중력’ ‘트롤리’ 등 전곡 11곡 프로듀싱·작곡 참여 11월부터 ‘더 신승훈쇼’ 전국투어다. 5년 전 30주년 스페셜 앨범 ‘마이

페르소나’(MY PERSONAS)를 냈으나 정규로는 10년만이다. 그는 “35주년이라고 해서 과거의 영광을 꺼내며 ‘나 이런 사람이었다’는 하기 싫었다. 히트 공식에 맞춰 곡을 쓸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신곡으로 꽉 채워 현재진

행형 가수로 보이길 바랐다. 학처럼 아름다운 하강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신승훈은 1989년 데뷔곡 ‘미소 속에 비친 그대’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데뷔 음반은 140만장 이상 판매되며 당시 한국 음반 판매 기록을 새로 썼고,

이후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랑’, ‘그 후로 오랫동안’, ‘아이 빌리브(I Believe)’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국민 가수’로 불렸다. 한국 대중가요사에서 1700만장 이상의 누적 음반 판매를 기록한 드문 아티스트이며, 정규 1집부터 10집까지 골든디스크어워즈를 10회 연속 수상한 유일한 가수다. 활동을 재개하는 소감으로 그는 “급변하는 가요시장 속에 발라드란 장르가 BGM(배경음악)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렇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발라드만의 감성이 있다. K팝 시장이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 그 옆에서 발라드라는 장르가 잘 버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김건모도 비슷한 시기 공연으로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티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wo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natura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세기의 투수, 그는 ‘영원한 다저스맨’

18년간 마운드 지킨 커쇼 은퇴
통산 222승, 평균자책점 2.56
“건강하게 던진 올해가 시점”

“마음은 편안하다. 단지 감정이 북받칠 뿐이다.”

‘21세기 최고의 투수’라는 평가를 받아온 클레이튼 커쇼(37·LA 다저스)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운드를 떠났다.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등판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이어온 18년간의 페넌트레이스 일정은 모두 마무리했다.

커쇼는 지난 19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현역 고별전을 치렀다. 이날 선발투수로 나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9구를 던지며 4피안타 4볼넷 6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5이닝을 채우지 못해 승리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다저스는 6-3으로 이기며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커쇼의 은퇴를 축하했다.

2006년 MLB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전체 7번)에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커쇼는 2008년 빅리거로 승격했다. 시속 93마일대 중반의 빠른 공과 낙차 큰 커브를 앞세워 내셔널리그(NL) 마운드를 호령했는데, 2010년 13승을 시작으로 8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거뒀다.

특히 2014년에는 가장 많은 21승을 거두며 MLB를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2013, 14년에는 류현진(38), 잭 그레인키(42)와 함께 강력한 선발진을 형성했다.

MLB 통산 453경기에서 222승96패,

3045탈삼진, 평균자책점 2.56(2849이닝 804자책점)의 성적을 남긴 커쇼는 구장 밖에서는 각종 선행과 기부로 호평받았다. 매년 아내와 함께 잠비아를 찾아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고, 꾸준한 기부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

2020년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며 평생상부 ‘21세기 최고 투수’임을 확인한 커쇼는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2승을 거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재기에 올해 다시 10승 고지를 밟았다. “아직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데도 “건강하게 던진 올해가 바로 떠나야 할 시점이라고 느꼈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지난 18일 고별 기자회견에서 커쇼는 “마음이 바뀔까 봐 주위에도 은퇴 사실을 많이 알리지 않았다. 나는 슬프지 않다. 다만 감정은 조금 복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이튿날 뜨거운 환호 속에 은퇴 경기에 등판했다. 비록 구속은 시속 86마일대로 줄었지만 예리한 커브와 슬라이더를 섞어 던져 6개의 삼진을 잡았다. 5회초 아웃카운트 하나를 잡은 커쇼는 마운드를 에드가르도 엔리케스(23)에게 넘겼다. 스탠드를 가득 메운 5만여 관중은 3분 30초 동안 기립박수로 전설을 배웅했다.

2014년 NL 최우수선수(MVP)에 사이영상을 세 차례나 받은 커쇼는 향후 명예의 전당 입성이 확실시된다. 데이브 로버츠(53) 다저스 감독은 커쇼의 포스트시즌 엔트리 등록 가능성을 내비치며 “커쇼는 이 시대 최고 투수다. 동시대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지만, 커쇼처럼 책임감이 강한 투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고봉준 기자



LA 다저스 레전드 투수 클레이튼 커쇼가 지난 19일 홈 구장 다저스타디움에서 현역 고별전을 치른 직후 기립 박수를 보내는 팬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LA 다저스 인스타그램]

LPGA 월마트 챔피언십 악천후 탓 18홀로 축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이 악천후 탓에 18홀 경기로 축소됐다.

대회조직위원회와 LPGA 투어는 대회가 열리는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 컨트리클럽(파71)에 대회 최종일 21일에도 악천후가 이어져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회는 공식 대회로 인정받지 못하며 출전 선수들에게는 CME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다만 규정에 따라 총상금의 절반인 150만달러를 상위 65위까지 순위에 따라 나눠준다.

대회조직위원회와 LPGA 투어는 출전 선수 144명 전원에게 3500달러씩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1라운드에서 8언더파 63타를 친 셰라 슈멜젤, 가쓰 미나미가 공동 1위에 올랐고, 이소미가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입상 기록은 인정받지 못했다.

한국 대표 카스트로프 분데스리가 선발 데뷔

한국 축구 국가대표로 뛴 엔스 카스트로프(뮌헨글라트바흐·사진)가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카스트로프는

21일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레버쿠젠과의 2025-2026 분데스리가 4라운드 원정 경기에 2선 왼쪽 날개 자리에 선발로 출전했다. 카스트로프의 분데스리가 무대 선발 데뷔전이 다.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미드필더 자원으로서 독일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다.

그는 독일 2부 리그에서 4시즌을 뛰었다.

카스트로프는 흥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아 한국 축구대표팀에 소집됐고 이달 초 미국전과 멕시코전에서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다저스, 구단 최초 시즌 관중 400만 돌파

양키스 등 이어 역대 10번째
평균 4만9537명, 올시즌 1위

메이저리그(MLB)의 명문 구단 LA 다저스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시즌 400만명 관중을 돌파했다.

다저스는 21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올 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4만6601명이 입장해 총 관중 401만247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다저스는 올 시즌 경기당 4만9537명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관중 1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400만 관중을 돌파한 구단은 토론토 블루제이스(1991·1992·1993년), 콜로

라도 로키스(1993년), 뉴욕 양키스 2005·2006·2007·2008년), 뉴욕 메츠(2008년)에 이어 올 시즌 다저스가 10번째다. 1962년 개장한 다저스타디움은 5만6000석으로 메이저리그 최대 규모이지만 1978년까지는 300만관중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36차례나 시즌 관중 3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 구단으로 거

듭났다. 그런데도 400만 관중은 높은 장벽이었다. 2019년 기록한 397만4309명이 종전 최고 관중이었다. 하지만 오타니 쇼헤이를 비롯해 최근 특급스타들을 끌어모은 다저스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 열기에 힘입어 올 시즌 대망의 400만 고지를 넘게 됐다.

다저스는 올해 81번의 홈 경기에서 46차례나 5만명 이상이 입장했으며 4만명 이하의 한 번도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정경기에서도 평균 관중 3만 5118명을 기록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바른 기사만 담겠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챌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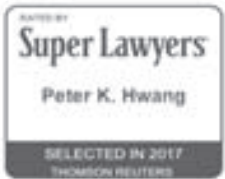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9월

구인

광고

고

사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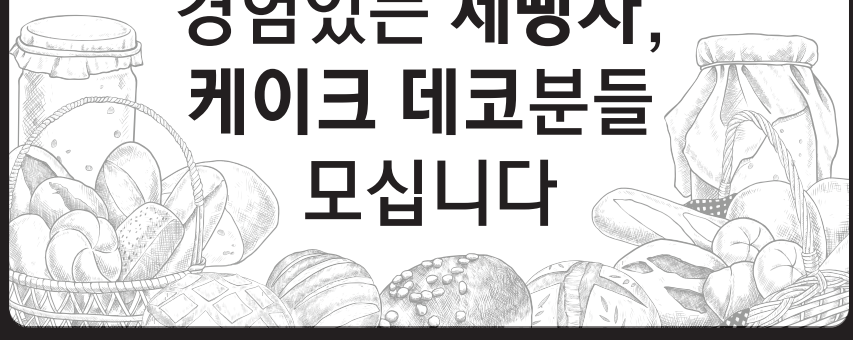
직원 모집



- ▶ 풀타임 & 파트타임
-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 이중언어 우대
-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 월수입: \$5,500 ~ 6,500
- 업종: 캔디 배달(VA, MD)
-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 Chantilly, VA 지역
- ◎ 이중언어 필수
-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
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
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
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는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
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엘리콧 시티 Cafe June 직원 모집
-바리스타 2명 (전화 443-310-9247)
-샌드위치 스탠프 1명
(전화 443-386-0515)
주말 근무 가능자, 신입/경력 모두 환영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리마켓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콧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트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
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 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싱글/타운 방 렌트

메릴랜드 뉴그랜드마트 근처 싱글홈
2층 욕실 딸린 큰방,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저먼타운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방3, 화3.5, 10월1일부터 입주 가능
301-219-6030 (문자요망)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
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홈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 2, 화장실 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프,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 곳으로 리모
델링비 절감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간호사 모집 RN, LPN (풀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펜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
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풀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 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멘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 버스타워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 (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Hashi Sushi 일식당에서 서버, 어시스턴트
매니저 구합니다.
영어 필수, 경험자 페이 우대
703-628-9168 (문자)

파리마켓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쉐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트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 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해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집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트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 - 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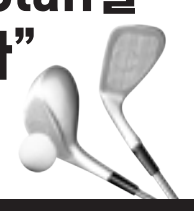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신경치료

• 전치/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발치

• 미용치과

• 크라운

• 잇몸치료

• 임플란트 틀니

• 응급환자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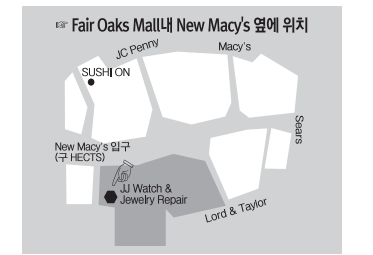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중앙일보**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를 모집니다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세탁/엘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옆
240-644-4190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곳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기타구인

가사도우실분을 찾습니다.
-음식 잘 하시는분, 세탁, 집안 정리
-맥클린(VA) 지역
-주 5일 또는 파트타임
-하루 6-7시간 정도, 12시-7시, 12-8시

▶703-887-1037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Office 청소하실 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 (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우드브릿지 3 Levels Townhouse 렌트
\$2,400, 방3, 화장실 3.5, 업그레이드 지붕,
창문, HVAC, 탁트인 넓은 부엌, 2 Master
Suit Bedroom (윗층), 펜스 있는 뒷마당, 갈
나무가 있는 앞마당, 교통편리, 밝은 타운하
우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페어팩스 타운하우스 \$3,000
로빈슨하이स्क 근처 1,496sqft 전체 렌트
방3, 화3.5, 11/5일부터 입주가능
703-470-1736 / 703-470-7066

조용한 로튼 (페어팩스) 고급 주택가 1층 같
은 워크아웃 지하 전체 렌트합니다.
2,500 sqft, 방3개, 넓은 리빙룸, 인터넷, 유
틸리티 포함, 냉장고, 세탁기, 마이크로 오븐
등 주방시설, 출입분 별도
703-478-452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애쉬버튼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텍, 267/607
Briar Woods 하이स्क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1. 페어팩스 타운홈 \$3,3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편리한 로케이
션, 잘 관리된 집
2. 센터빌 타운홈 \$3,000
방3, 화2.5, 차고1, End Unit, 업그레이드 많
이함, 근로케이션
3. 스프링필드 타운홈 \$3,000

방2, 화2.5, 2 assigned 주차, 밝고 환한집,
업그레이드 많이 함, 교통 편리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 지
하 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 넉넉,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 다수, 콜린 파월츠,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 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1,500
방1, 화장실1, 고급스런 나무 마루, 탁트인
넓은 콘도, 업데이트된 부엌, 계단없는 1층
나무가 보이는 넓은 발코니,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알렉산드리아 콘도 \$2,100
방2, 화장실1, 1,105 SF 넓은 콘도,
13층으로 탁트인 조망, 엘리베이터,
\$100,000 가량 수리하고 업데이트한 모델
하우스 같은 콘도, 넓은 새 창문, 최고급스런
부엌, 넓은 리빙룸, 리모델한 화장실, 새 페인
트,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매나사스 콘도 \$1,700
방1, 화장실1, 엔드 유닛 880 sf, 넓고 밝은
콘도, 세탁기, 건조기, 새 화장실, 나무 마루
거실, 새 페인트, 넓은 발코니, 코스트코에서
1분 거리,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헌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
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트, 1,600sf, RT267/28, 최
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GMU 근처 조용한 동네 싱글하우스 욕실 딸
린 큰방 하나 렌트합니다.
남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240-271-1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예촌 앞 타운하우스 방 렌트합니다.
가구 완비, 취사 가능, 직장인, 학생 환영
703-622-2033

애난데일 타운하우스 밝고 조용한 윗층 방 렌
트, 나무 마루, 유포, 교통편리, 여성분 환영
고양이 괜찮으신분만 문의 바랍니다.
571-345-8879 (문자요망)

애난데일 메시아장로 교회 뒤 타운홈 2층 방
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703-887-5173

애난데일에서 5분거리 싱글홈 윗층 (아랫층
과 완전 분리) 렌트합니다.
방3, 풀 화장실, 리빙룸, 큰 텍, 큰 창고, 차고2
개, 넓은 뒷마당, 395/495/95 3분 거리
703-508-5405 (Julia Jin)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 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왓슨 하이स्क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한강 식당 뒤 싱글홈 방 렌트, 주차
편리
703-395-4380/703-965-2343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큰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웨스트 스프링필드 하이स्क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합니다.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 (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센터빌 벅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콘도 \$274,900
넓은 방2, 화1, 탁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
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 레스톤 콘도 \$499,900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
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어메니티가 좋음
3. 우드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럭셔
리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벽난로, 연
못, 분소, 텍, 음향시스템등) 골프장, 클럽하
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4, 화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4, 화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5

잘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1. 패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1, 차고 2, 넓은 구조와 잘가
꾸어진 집, 벽돌, 마루 바닥
2. 패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우슨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
3. 비엔나 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 2, 새집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4. 패어팩스 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 3+1, 차고 2, 앤드 유닛, 아주 밝
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703-899-8999

1. 던로링 메트로 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층 오픈 LOFT 835 sqft,
전부 리모델링, 나무 마루
2.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495,
66/26/7
Metro, Tysons Galleria원
▶571-239-6054

Alexandria 콘도 \$365,000
방2, 화2, Top Floor 앤드 유닛,
업데이트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
Granite Countertops, Deck, 세탁기, 건조기
▶703-813-8949

1. 센터빌 싱글홈 \$770,000
방3, 화3.5, 차고2, 업그레이드 부엌, 마루,
넓은 뒷뜰
2. 패어팩스 싱글홈 \$1,005,000
방5, 화3.5, 차고2, 최근에 전체적으로 업그
레이드한 집, 넓고 고급스러운 집
▶703-899-8999

1. Ashburn 타운하우스 2012년
방3.5, 최고 학군, Dulles Airport
RT267/50/28/607
2. Woodbridge 싱글하우스 \$639,000
방3, 화2.5 차고1, 좋은 동네, 좋은 학군, 전부
업그레이드, RT 1/95/234
3. South Riding 타운하우스 2014년
\$645,000,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571-239-6054

1. 패어팩스 새 빌더홈 우슨 학군 싱글홈
\$1,900,000
2. 패어팩스 씨티 타운하우스 새 빌더홈
\$930,000 방3, 화장실3, 차고2
3. 찬탈리새 빌더홈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670,000 방3, 화장실2.5
4. 패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
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5. 찬틀리 콘도 새 빌더홈 (2025년 완공 예정)
\$530,000 방2, 화장실2
▶703-231-5572

1. 알렉산드리아 단독주택 \$619,000
방3, 화2 단층집으로 넓은 백야드 0.3 에이커
프랜코니아 지역으로 교통,
생활시설 편리, 시니어 거주하기에 편리한 단
층구조, 지붕, 에어컨등 최근 교체, 계단 없슴.
2. 매너서스 콘도 \$330,000
방2, 화2 주차공간 편리한 콘도,
그로서리, 병원, 레스토랑, 도서관등 좋은 생활
여건
▶703-483-0505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급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척 이상, 3000 sqft,
저렴한 렌트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
링비 절감 효과,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멜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헤어, 네일 & 스파 살롱 사업체 매매
(레스톤 / 헌트 지역)
-\$100,000
-현직 경험을 두루 갖춘 잘 정비된 사업체로
수익 좋고 지속 성장 가능

- 월임대료 & 수도세 없음 **
- 6개 헤어부스 + 2 페디큐어 부스 + 2 네일
테이블 + 1 마사지룸 + 1 욕실룸
꼭 관심있는분만 연락 바랍니다.
571-315-3533 (영어 가능하신분)

중고 매매 / 기타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널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admin@eb3recruit.com

상태 좋은 남/여 중고 골프 세트 싸 가격에 팔
니다.
703-966-9072 (Mr.Kim)

부동산 학교 (5주 속성반)
2025년 9월 16일 (화) 개강
한국식 쪽집게 수업, 온라인 수업 병행, 기본
컴퓨터 교육, 합격후 10주 실전교육, 자체 제
작 한글교재와 문제 풀이
수업료 \$350 (교재비 \$100)
703-899-8999/410-417-7080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
트 - 악기별 개인맞춤 레슨
757-338-8496

애넌데일 H마트 근처 텃밭 공유 하실분
1평, 2평, 3평
517-318-1119

무빙 세일 (센터빌)
다이나믹 테이블, 쇼케이스 그림, 유로피안 장식
품, 골동품, 청동으로된 인어공주, 자수정 수
집품, 강아지 케리어 등등
808-223-4825

1년된 Inokim OX Scooter
공원에서 서너번만 사용해 상태 좋음, 필요하
신 분께 저렴하게 드립니다.
703-945-2991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
Real ID 신청/차량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ZOOM-ART - Pen & Water Color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수학 개인과외 합니다. (면대면 및Zoom 강의)
SAT & ACT 준비 (대학입시 준비반) 및 영재
수학-올림피아드 (중, 고등학교 준비반) 교육
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202-320-0431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Email : inyeolchoi@hotmail.com

골동품 이조가구 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
매가능, 일본 물건도 있음.
240-796-0093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
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박
703-434-2810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TOP 건축 플룸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가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
닝,샌딩,파워 워시,핸디맨 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타일,부엌,화장실,텍, 그외모든공사,주
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 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옴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자동차/주
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로리 문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
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SD MECHANICAL 테크니션 모집
대형슈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Email: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KWK 냉난방 BALTIMORE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 프리저
수리 전문
443-540-6922 / 410-292-0001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상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
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
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 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
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
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
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
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
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Email : 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
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
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
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
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리모델링/핸디맨/전기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개스/히팅/에어콘/역류장치/
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
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용
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및설치 (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BS Energy Inc에서 VA 지역 LED 프로
그램 세일즈 및 전기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담당자: 301-704-2482
회사: 443-864-5193
Email: hbsenergysolution@gmail.com

▶▶리모델링/부엌/화장실/실내/실외
30년 경력/정직/확실한 시공과 마감!
파인애플홈 Mr. 박
703-434-2810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전문
703-340-5858 (VA)
443 -980- 5858 (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HD Plus Construction
밀워샵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텐인)
- 카펜터 (캐비넷,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세스 메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콜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703.994.2943
Ray Ki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대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 수도꼭지 교체

◆ 싱크 / 디스포저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씽크오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소품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uckle down;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다

(Derrick is talking to his Dad...)

(데릭이 아빠와 이야기를 한다...)

Derrick: Dad I’ve made up my mind what I want to do.
데릭: 아빠 뭘 할건지 마음을 정했어요.

Todd: Good. What have you decided?
타드: 잘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니?

Derrick: I want to go to college.
데릭: 대학 갈래요.

Todd: What made you change your mind?
타드: 왜 마음이 바뀌었니?

Derrick: I realize that I need to go to college to get a good job.

데릭: 좋은 직장을 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하는 걸 알았어요.

Todd: Are you ready to buckle down and study?
타드: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됐니?

Derrick: Yeah I’m sure of it.
데릭: 예 확실해요.

Todd: What turned you into a serious student all of a sudden?

타드: 갑자기 열심히 학생이 된 이유가 뭐냐?

Derrick: I finally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데릭: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지 이제 깨달았어요.

Todd: I hope you still believe that when you’re actually in college.

타드: 실제로 대학에 가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

으면 좋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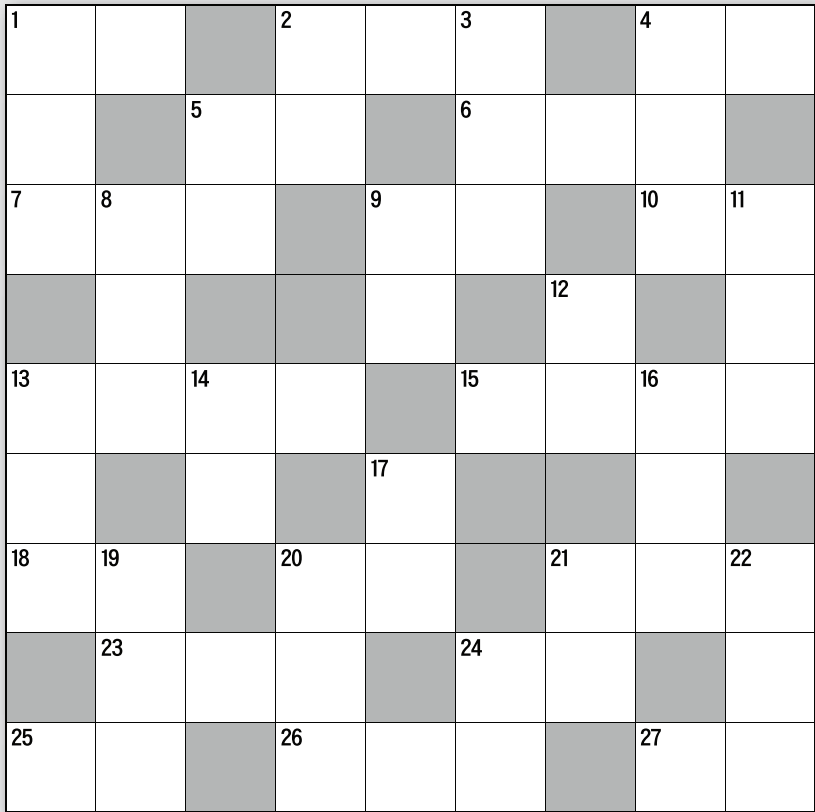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make up (one’s) mind: 결심하다.

“I hope she makes up her mind to marry Jerry.”
(그녀가 제리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정했으면 좋겠다.)

*change (one’s) mind: 마음을 바꾸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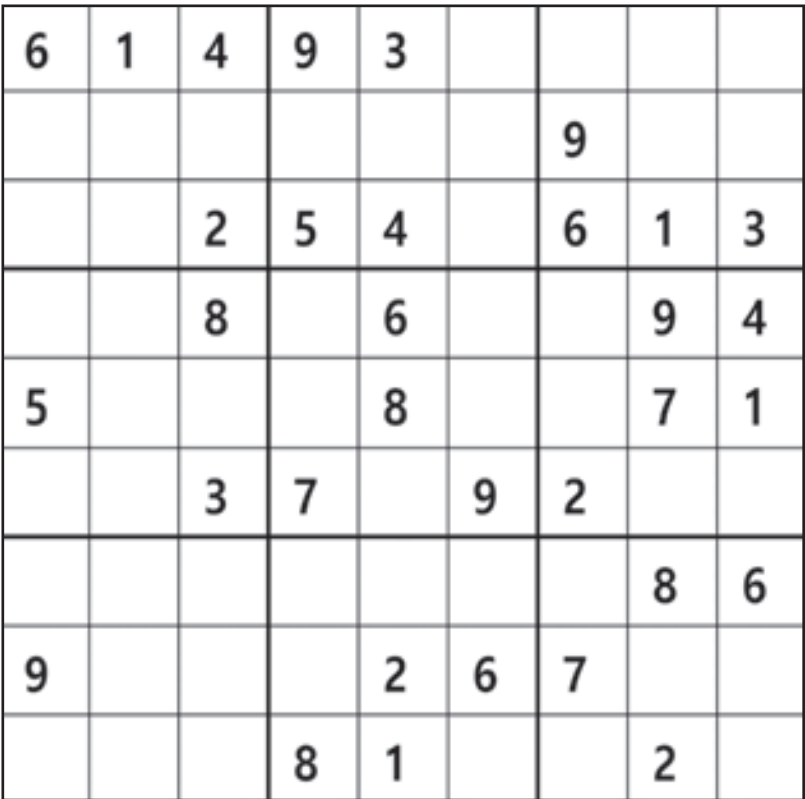
가로열쇠

(1)한글의 첫째 자모인 ㄱ의 이름 (2)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 아이들 ~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4)야구에서 수비수의 허술함을 틈타 다음 투로 가는 일 (5)토산물을 임금이나 고관에게 바침 (6)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뜻으로 베푸는 모임 (7)문짜를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9)군역이나 부역에 소집된 남자 (10)죄를 짓고 살면 죽어서 이곳으로 갑니다 (13)떡이나 과일, 과자 따위의 군음식을 먹음 (15)키가 아직 석 자밖에 자라지 않은 아이. 철모르는 어린아이 (18)여러 색의 비단 조각을 잇대어서 만든 형질. 신부는 ~으로 된 저고리에 다홍치마를 입고 있었다 (20)돌이나 바위가 험하게 삐죽삐죽 튀어나온 곳. 썰물 때에는 이 섬 주위의 ~이나 산호초가 드러난다 (21)3년과 같이 시간이 길게 느껴짐.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23)남의 시킴이나 부탁을 받고 그 일을 대신함 (24)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25)과거의 갑과에서 일등으로 급제함 (26)팔죽에 넣은 덩이. 새의 알처럼 생겼조 (27)한 번 달려 낸 한약재를 다시 달임

세로열쇠

(1)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 (2)북쪽을 향하여 올라감. 남에서부터 꽃소식이 ~하고 있다 (3)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4)사람이 많이 살고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 (5)조개 속에서 나오는 보석. 하얀 구름 너울 쓰고 ~ 이슬 신으셨네(이은상) (8)앞서 진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겨루는 경기. 복수전 (9)통나무를 길게 잘라서 쪼갬 뿔나무 (11)옥같이 잘생긴 사내아이 (12)한 자의 거리. 아주 가까운 거리. ~이 천리라 (13)조명에서, 햇빛에 가까운 색 (14)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 (16)어린이 모양처럼 생긴 산삼 (17)봄철에 오는 눈. 매화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옛 피던 가지에 피엄직도 하다마는/~이 난분분하니 필동 말동하야라(매화) (19)같은 중심을 가지며 반지름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원 (20)너그럽고 시원스럽게 말로 떠벌려서 일을 주선하는 솜씨 (21)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22)미꾸라지를 넣어 끓인 국 (24)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임. 작은 일에 지나치게 ~을 갖는 사람은 대개 큰일에 무능하다(라 로시푸코)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카드 유효 3자리 CVS: /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사장님의 꿈:
최신형 기계 교체
+ 수수료 절약
+ 최고 서비스

30주년
프로모션으로
리버티뱅크카드와
월드페이
가
사장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대표 : 사라 류 박사
https://wikia.com/wiki/Dr._Sarah_Sun_Liew
30년 프로세싱 경력,
경영학 박사
(전자상거래 & 금융),
영업학, 교육학, 설교학 박사
하버드 경영·교육·정치 대학원
Alumni MIT, Wharton,
Chicago Booth
경영대학원 수학
하버드, 아브라함(J.D.),
퍼시픽(J.S.D.) 법대원 수학
부사장 : 아브라함 이
(경영학 학사, 석사)

상당자 모든분께 책 증정 : International best sellers
브라이언 트레이쉬 & 사라류 박사 공저 Succeeding
In Business In any market E-book 증정,
이메일/전화상담 환영 info@meridianwish.com

▶ 최신형 기계 교체
(WiFi • Wireless • Touch Screen 지원)
▶ 수수료 매달 \$50 ~ \$500 절약!
▶ 세계 1위 회사 Worldpay
+ 30년 경력 Liberty Bankcard 전화주세요!
www.worldpay.com
Info@meridianwish.com
424-332-3779
WORLDPAY는 전세계 175 개국 2 M 고객센터, 연간 550억건 거래
Liberty Bankcard (MPS) is a registered independent Sales Organization of Worldpay ISO
and Ecommerce, LLC, a registered ISO of Fifth Third Bank, N.A., Cincinnati, OH, USA

L.A

매매

구인

Dental Lab 매매
Columbus 오하이오
매상:110만불 이상/년
주인은퇴
E-MAIL TO:
accutech614@gmail.com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바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알려드립니다
본보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인사회 유일의 정론지
중앙일보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대표전화 (213)368-2500
안내광고 대표전화 (213)368-2525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9월~12월
한정판매

자연산삼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자연산삼의 효력
면역력 향상효과
당뇨 혈압
체력증강 등등.

5~20년 \$600
20~30년 \$1,000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Kim's Acupuncture Clini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들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 례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사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605-4890 • (281)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9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